MAY 2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28 1982년 5월20일(목) |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 Thusday, May 20, 1982

송금증명 어려워, 일반이민도 반이상 탈락

"투자이민 거의 없다"

서더랜드이민관 회견, 관광객은 증가할듯

(서울=김명규지사장)주한 캐나다대사관의 조지·서더랜드(George A.Sutherland) 이민관은 지난 10일 "한국서 투자이민으로 캐나다에 이주한 사람은 거의 없다("Very few")"라고 말했다.

"이민희망자가 한국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외화는 최고 10만달러이며 그것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캐나다 투자이민은 어렵다"고 말한 서더랜드씨는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캐나다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외환관리법상 이민전 송금이 거의 불가능, 캐나다내에 투자했다는 금액이 정말로 이민희망자의 돈인지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정부로서는 한국인들의 불법적 외환반출을 조장할 수는 없다고 서더랜드 이민관은 덧붙였다.

캐나다에 투자이민 희망자는 한국외에 제3국 소재 캐나다공관에 서류를 접수시킬 수도 있다.

현재 주한 캐나다대사관에는 40명 직원중(캐네디안 18명) 이민관계 고위직원은 캐네디안 2명및 한국인 1명이며 이밖에 비서 3명, 사무원 1명등 7명이 일하고 있으나 일손이 바빠 이민신청자가 이민관과 인터뷰하려면 서류제출일부터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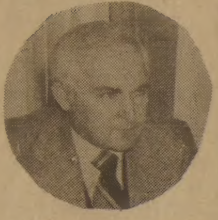
한국과 캐나다간의 관계가 긴밀해져 양국의 방문자도 급증, 방문 비자 발급업무도 상당량을 차지한다.

가족방문 또는 상용비자는 신청당일로 발급된다. 단 90일이상 캐나다체류 희망자는 방문자라도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서(흉부경유)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속이 복잡하다.

오는 7월부터 관광여행이 자유화되면 캐나다대사관 비자창구는 더욱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한 관광여행자 비자는 지체없이 발급될 것"이라고 서더랜드 이민관은 말했다.

81년중 약 1,400명의 한국인이 캐나다에 이민했고 이중 많은 부분은 직재가족 초청및 친척초청이다. 그러나 이민신청자중 50% 이상이 실격된다.


◆서더랜드 주한 이민관

지난 1월부터 인력성이 발행하는 고용계약서(Confirmation of offer of Employment)가 없는 독립이민신청자를 제약, 최근 증가된 항공정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같은 기술계통자들의 이민도 일시 중단됐다.

서더랜드씨는 상점경영 교포들이 헬퍼를 초청하려 해도 고용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사관에 의하면 위니펙 봉재사 총3백명중 270명은 이미 현지에 도착했으나 나머지 30명은 초청자인 마니토바봉재협회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중이다.

서더랜드씨는 30년래 최고의 실업률(9.6%, 120만명)을 지적, 이민의 문이 더욱 좁아져감을 암시했다.

구속된 「캐」시민은 문지식뿐

「트」방한으로 우호강화

(서울=김명규지사장)윌렴·바우어(William E. Bauer) 주한 캐나다대사는 "한국에서 구속된 캐나다 시민권자는 문지식씨 뿐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는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2월 부임한 바우어대사는 "주한대사직은 바쁘고 활약이 많은(Busy and active) 자리로서 나의 임무에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주한캐나다대사관(무교동 15번지 코오롱빌딩 10층, C.P.O.Box 6299 Seoul 100, Korea 전화: 776-4062 & 4068)에서 가진 인터뷰에는 경제담당 1등서기관 필립·매키논씨(Philip Murdoch MacKinnon), 상무담당 디킨슨영사(L.T.Dickenson)도 배석했다.

바우어대사는 작년 9월 있은 트루도수상의 방한은 무엇보다도 양국의 우호를 확인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 구체적 결과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국에 관심이 많은 트루도수상은 양국상호 이해를 촉진한 지난 방문을 즐겼다("He enjoyed his visit.")"고 전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간의 교역량은 도합 12억달러(한국측이 더 수출)에 달하며 문화및 스포츠교류면에서도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토론토대학과 서울대학등 양국 대학교는 교수를 교환하며 알버타대학은 중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브리티쉬·콜럼비아대학및 토론토대학은 한국학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알버타주와 자매관계인 강원도는 농부 교환계획을 수립중이다.

캐나다 교포자녀들로 구성된 화랑 아이스하키팀과 캘가리 태권도팀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탁구팀, 하키팀들이 캐나다를 다녀갔고, 또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윌렴·바우어대사

민족상 후보 18명

오는 25일 본선심사

지난 15일로 마감한 본사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후보로 추천된 인원은 10명이며, 전회 이월분 8명을 포함 이번 후보는 총 18명에 달한다.

이들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부문 4명·학술부문 1명·공로부문 6명·봉사부문 7명.

이들 후보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메트로토론토 11명, 위니펙 2명, 에드몬턴 1명, 런던 2명, 오타와 1명, 레지나 1명이다.

한인민족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는 오는 25일(월)하오6시 토론토 한인가톨릭회관(439 Dudas St.E. × Parliament)에서 제2회 한인문학상 심사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올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은 6월26일(토)에 있을 예정이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국정자문단등 오타와 방문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박충훈 전 국무총리등 4명의 국정자문위원단이 25일 오타와를 방문, 캐나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예방한다.

국정자문방문단은 박총리 외에 민복기 전 대법원장, 이형근 전 재향군인회장·반공연맹이사장, 이영복 천도교교령으로 구성됐다.

한편 윤석민 합참의장도 이날 오타와에 도착한다.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언레디드 개스가격 너무높아"

로즈의원, 원가하락 주장

(오타와)신민당의 마크·로즈 연방하원의원은 석유회사들의 근거없는 유가인상책으로 시민들은 「언레디드 개솔린」(Unleaded gasoline)에 대해 수백만달러를 추가 지불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17일 공개된 연방정부 앙드레·울레 소비성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로즈의원은 의회합동조사반을 구성, 레디드와(leaded gasoline) 언레디드 개솔린 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조사착수를 촉구했다.

캐나다통계국자료를 인용한 로즈의원은 몬트리얼 주유소의 「레디드」와 「언레디드」 가격차가 79년1월의 6.1%에서 82년 1월 8.5%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동안 에드몬톤과 뱅쿠버의 가격차는 각각 6.4%에서 7.5%, 6.3%에서 7.3%로 늘어났다.

B.C.주 출신인 로즈의원은 석유회사는 언레디드가솔린생산가가 더든다고 주장하나 날이 갈수록 커지는 「레디드」와 「언레디드」의 가격차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반박했다.

로즈는 언레디드 가솔린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 시장조건에 비추어볼 때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희씨 집 팔아

아들 최중화씨의 대통령 암살음모 혐의사건 보도에 불만, 본지를 비롯한 일부 교민지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최홍희씨가 최근 1470 미시사가·로드의 자택을 팔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지가 한푼도 없는 최씨의 집은 작년 7월, 46만달러 전액 현찰지불 조건으로 시장(MLS)에 나왔었다. 최근 개인적으로 매도된 가격은 $175,000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QEW 남쪽의 저택을 팔고난 뒤, 근처의 약6천Sq.Ft.의 부지에 짓고 있는 새집에 이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정명화씨 27일 토론토에

$30 만짜리 첼로 선보일듯

오는 29일 토론토 한인교향악단(지휘 김승순)과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를 협연할 첼리스트 정명화(38)씨가 오는 27일 오후 이탈리아항공기편으로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다.

이번 한인교향악단과의 협연에서 선보일 정씨의 첼로는 그가 4년전 장만한 세계적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시가 $30만짜리, 1731년에 제조된 것이다. 정씨는 연주여행때마다 첼로를 위한 비행기좌석권을 따로 사서 옆자리에 놓고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토마지국장인 구삼열(Samuel Koo)씨와 결혼, 두딸을 둔 정씨는 20대부터 명성을 날리기 시작, 71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음악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 연주가로서의 기반을 굳혔다.

특히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회 차이콥스키 경연대회에서는 유망한 입상자로 지목됐었으나 한국정부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지 못해 대회에 불참해야만 했다.

차이콥스키대회 제1회때 입상, 일약 대연주가로 대접을 받기 시작한 반·클라이번같은 피아니스트를 배출한 이 대회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콩쿨이다.

명화씨는 지난 2월 KBS교향악단과 협연차 귀국했을 때 "20대까지만해도 각종 경연대회와 콩쿠르에서 상을 타고 경력을 쌓기 위해 조급했지만 이제 음악과 더불어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고 보니 스스로보다 완벽한 연주가가 되기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무엇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가 머리속에서 맴돌고 있지요"라고 말했었다.

한해 평균 40여회 연주하는 명화씨는 13세때 이미 이화여고주최 음악콩쿨에서 1등, 서울시향과 협연했고 61년 도미, 쥴리아드음악학교에서 레오나드·로즈교수및 세계적 대가 피아티골스키에게서 사사받았다.

당시 피아티골스키는 '보기 드문 매력을 지닌 첼리스트"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미·유럽 각지의 굴지의 교향악단과 계속 협연, 뉴욕·포스트지로부터 "현대에 가장 괄목할만한 주요한 젊은 첼리스트", 뉴욕·타임즈지로부터는 "대단히 기교적이며 지적이고 깊고 다양한 맛을 지닌 연주자"라는 평을 들었다.

정명화 협연의 제4회 한인교향악단 연주회는 29일 8시 라이어슨극장(Ryerson Theatre, 43 Gerrard St.)에서 있으며 입장권은 각 한국식품점이나 모짤트음악학원(881-8211)에서, 또는 당일 극장 매표소에서 살 수 있다.

◆정남매 : 바이올리니스트인 동생 경화양(오른쪽)과 지휘자로 명성을 굳히기 시작한 명훈군과 함께 한국인의 음악성을 세계에 빛내고있는 명화양(왼쪽)이 한인교향악단과 협연차 토론토에 온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토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토론토 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 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가는 신문.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발 축 전

외환은행 블로아지점
지점장 김 남 수

온타리오 실업인협회
회장 차 선 겸

귀업체의 입회를 환영하오며 아울러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 코리아타운 번영회 —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EEC, 알젠틴 금수조처 연장
아일랜드와 이태리는 미온적

(룩셈부르크)유럽공동시장(EEC)은 포클랜드 분쟁과 관련 알젠티나에 대한 수입금지조처를 7일간 더 연장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영국은 금수조처가 해제되기 30분전인 17일밤 EEC 회원국들에게 알젠티나에 대한 금수조처를 1달 더 연장해 줄것을 요청했다.

총10개국의 EEC 회원국중 아일랜드와 이태리는 처음 금수조처 연장에 반대했으나 회의종료를 막바지에 두고 동의했다.

영국의 프랜시스·핌 외무상은 현재와 같은 분쟁중에 알젠틴과의 통상재개는 오히려 알젠틴이 오판, 전쟁을 더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전쟁행위를 하는 어떤 나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아일랜드헌법의 중립성을 들어 이번 금수조처연장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영국에 의해 지난 2일 격침된 알젠틴 순양함 「제네랄 벨그라노」호의 사망하거나 실종된 3백여명 승무원중 절반이상이 이태리계 알젠티나인임이 밝혀지자 이태리국민사이에 반영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알젠티나국민 2천8백만중 1천1백만이 이태리계 후손이다.

년 $24억에 달하는 알젠틴과의 무역고에 대한 EEC금수조처는 4월2일 알젠티나의 포클랜드 점령직후 실시됐었다.

교 민 단 신

◆이영묵=「A-1 매케닉」이라는 합석(Sheet Metal)전문회사를 경영했던 이씨는 최근 SEL Sheet Metal Contractor Ltd.라는 회사를 욕빌에 설립, 냉난방등 각종 합석일을 맡고 있다.

전화는 665-0795.

교민친선 탁구대회
탁구협회, 개인·단체전등

탁구협회는 오는 6월5일(토) 상오10시 웨스트우드·주니어하이스쿨(994 Carlaw Ave.)에서 제2회 교민친선 탁구대회를 연다.

경기종목은 단체전, 남녀게임및 개인복식으로 많은 교민의 참가를 바라고 있다. 작년도 단체 우승팀은 에멘칭례교회 였다.

연락처 : 김동천총무 (243-0522)

-바로 잡습니다-

5월19일자 본지 2면 머리기사 『Y합창단 제1회 발표회』 기사중 첫 문장 "…오는 24일 하오7시30분 제1회 발표회를 갖는다"중 『6월』이 빠졌읍니다.

국민학교서 컴퓨터교육
씨알학교 올여름 시도

씨알한국인학교(교장 유회자, 이사장 장기철)는 금년 7월5일 여름학교를 앞두고 컴퓨터를 도입, 수학교육등에 이용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한영식이사댁에 모인 이사회에서는 컴퓨터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포2세들이 한글학교 교육에 보다 큰 흥미를 갖도록하기 위해 컴퓨터를 도입키로 했다.

"수학교육뿐 아니라, 기본 컴퓨터언어도 교육할 계획이다"라고 전한 유교장은 캐나다나 미국의 국민학교에서는 이미 컴퓨터를 도입, 수학교육뿐 아니라 성적표등 교육총계등에 이용해왔다고 전했다.

20명으로 구성된 이사들의 성금으로 구입될 컴퓨터도입을 위해 장기철이사장은 학부형등 교민사회의 성금도 기대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와 자선단체로 등록된 씨알한국인학교로 보내지는 성금은 면세대상이다. 성금을 보낼주소는 :

Mr. K.C.Chang
53 Thatcher Av.
Scar, Ont.
M1M 2M3
전화 : 261-3710
(장기철 이사장)

눈다친 레나드 은퇴종용
WBC, 주치의 "아직 이르다"

◇눈다친 레너드

(멕시코시티)세계권투평의회(WBC)는 12일 눈수술을 받은 프로복싱 웰터급 통합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에게 현역은퇴를 촉구했다.

WBC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레너드는 이미 복서로서 돈과 명성을 얻었으므로 신중하게 은퇴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체육협회는 레너드의 집도의와 트레이너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눈부상에 대해 협회가 직접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레너드는 로저·스태포트와 타이틀방어전을 앞두고 연습중 시각장애를 일으켜 치료를 받아왔으며 존즈·홉킨즈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왼쪽 눈의 망막접합수술을 받았다.

집도의 로널드·마이클스 박사와 레너드의 변호사 마이크·트레이너씨는 레너드가 복싱을 계속할수 있을지의 여부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82·83 온타리오 예산 해설 〈경제적측면〉
정치효과노린 단기대책 上
주택융자금 건설촉진, 금융효과

김상융 경제학박사

지난13일 발표된 온타리오 주정부의 82,83년도 예산안은 극히 단기의 경기진흥을 목표로한 임시변통 예산이다. 특히 임시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실업율의 감소를 빠른시일안에 이루고저 하는 정부의 의도가 예산안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연일 보도되는 해고(Lay-off)사태가 보여주듯 실업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접어들고있는 상황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보수당정부의정치적 고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에 반영된 주정부의 이러한 의도는실제로는 그것이 임시 단기적이라는 것 이외에도 그 규모에 있어서 극히 경미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온타리오정부는 예산안에서 임시고용증대, 건축업, 소기업진흥의 목적을 위해 5억달러의 지출을 새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타리오 주총생산(Gross Provincial Product)의 겨우 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정부가 돈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기침체로인한 재정수입의 격감(실업율증가, 기업운영 부진으로 소득세 수입이 줄고, 수요, 판매부진으로 판매세수입이 줄었다.)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삭감(연3억달러), 최근의사 진료비 인상협정(2억달러) 작년 온타리오정부의 Suncor석유회사 매입으로 인한 재정지출(3억달러)등온타리오정부는 지금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5억달러를 경기 자극을 위해 책정하는것은 그것이 설사 얼마 안되는 것이라도 정부는 만난을 무릅쓰고 주민들의 현실상 가장 급박한 문제에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주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얼마안되는"금액도 실은 정부혼자서 감당하는것은 아니고 온타리오 소비자들이 그대부분을 지불하게 됐다. 이번 예산안은 특정품목에대한 판매세액의 인상외에도 그간 온타리오 판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물품을 새로 과세대상에 추가, 재정수입의 증가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소비자들의 지출이 그만큼늘게되었다.

■일석이조

경기자극을 위한 예산지출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온타리오에 산재한 60,000개의 소기업체들 에 대하여 1982년과 1983년 2년간 기업소득세를 전액면제한 조처이다. 이로인해소기업들은 2년간 총 2억3천만달러의 소득세를 절약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매기업당 평균 4,000달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높은 이자율 때문에자금조달에 가장 애로를 겪고있는 소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소나마 숨쉴수있는 구멍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이나, 또한편 간접적인 고용효과의 목적도 이에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손을 더많이 필요로하며(즉노동집약적)따라서재정지원책을 써서 단기의 생산투자증대를 꾀할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것이 대기업을 지원하는것보다 단위당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데 정부가 착안한 것이다.

이렇게 적은돈을 들여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또하나의 예산조치로 처음집을 사는사람에게 대한 5,000달러의 무이자 융자금제도를 들수있다. Ontario Renter-Buy Program이라 부르는 이조치로 정부는 금년에7천5백만 달러를 지출할것을 예산안에서 책정하고 있다. 높은 이자율 때문에 집을사지 못하는사람들에 대한 혜택이기도하지만 이것은 또 새집건축을 장려함으로써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준다는 또하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Renter-Buy Program에의해 15,000개의 새집이 건축될 것으로 예상되며이에따라 38,000명이 일년간 할수있는 일거리가 생기게 될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31,000개의 임시일자리를 만들어내기위하여 1억7천만달러를 각종사업에 지출할 것을예산안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중의 대부분인 1억3천만달러가 주로 도로, 건물보수, 개조, 신축사업에 사용될 것이다.

이와같은 재정 지원책은 현재 온타리오 실업인구(390,000명)중 약10%를임시로 다시 직업대열에 넣을수 있을것으로 정부는기대하고 있다.

〈식 자 안 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가격저렴
★ 빠른 서비스
한국일보사
☎ : (416)533-2361

〈여행상식〉
CPAir를 이용한 모국방문 ①

김창범(신세계여행사)

캐나다 태평양항공사(CP Air)는 토론토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5회 출발하는 CP는 수·금·일 3회는 홍콩까지 가는 편이므로 중국계여객으로 붐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동경이 종착공항이므로 좌석도 비교적 여유가 있다. 여름철 성수기때는 매일 출발하며 시간표는 요일에 따라 달라진다.

출발편마다 300명 이상이 탑승, 늦어도 출발 1시간전에는 체크·인(Check-In)해야 한다.

짐은 1인당 2개의 무료탁송이 허용되며 짐1개의 무게는 70파운드(32Kg)를 넘어서는 않된다. 약간 초과되는 것은 묵인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 거절되기도 한다.

짐은 체크·인할 때 행선지 서울까지 부친다. 중간에 동경에서 일박할 경우에도 자동인계 되도록 처음부터 서울로 부친다. 요즈음 토론토공항에서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토론토-뱅쿠버 구간뿐만 아니라 뱅쿠버-동경구간 까지도 사전에 좌석배정을 받아서 탑승권을 받을수 있다. 여행초보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뱅쿠버공항에서 좌석배정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좌석배정시 흡연 여부에 따라 좌석이 구분이 되고 창가나 복도쪽의 좌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여행사에 예약할때나 공항에서 휠체어를 요구할 수 있다.

토론토-뱅쿠버구간은 국내선이므로 비행기의 뒷좌석부터 스카이 빠스(특별요금)손님(갈색탑승권) 단체손님(녹색탑승권) 일반손님(청색) 일등석손님(홍색)으로 구분하여 탑승을 시킨다. 스카이빠스 손님은 비행도중 음료수정도의 써비스는 있으나 식사는 없다. 식사의 메뉴와 식기도 등급에 따라 다르다.

토론토에서 뱅쿠버까지 무착륙 대륙횡단(논 스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5시간이다.

식사는 주식이 생선과 고기로 구분되고 기타는 대동소이하다. 손님에 따라 채식주의자는 사전에 특별요구할 수도 있다. 술이나 청량음료수의 무료써비스가 있는데 식전에 마시는 술, 식사도중에 마시는 포도주및 식후에 마시는 꼬냑등으로 구분된다. 식전의 술은 각자 기호에 따라 다르나 좋아하는 것을 정해놓거나 최소한 술이름을 알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스캇치와 물, 진과 토닉, 마티니, 람과 코크, 만하턴, 맥주일때는 맥주명등이다. 식사도중의 포도주는 대체로 쇠고기 일때는 Red Wine,

식사메뉴 12가지, 술도 제공
토론토에서 동경까지 좌석예약

생선일때는 White Wine등이다. 술을 못하는 분은 오렌지 쥬스, 밀크, 세븐업등을 청구한다.

C.P.Air의 식사메뉴는 대개 12종이 있는데 캐나다의 12개주를 상징하는 꽃을 멋지게 인쇄한 메뉴카드가 영어와 불어로 표시돼 있다. 취미삼아 이 카드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다.

식사도중이나 식사가 끝난후 영화감상이 있다. 음악감상용으로 분배해준 리시버를 귀에 댄다. 5시간이 긴것같으나 식사하고 영화감상하고 눈좀 붙여서 잠을 청하다보면 어느덧 웅장한 로키산맥을 내려다보며 아름다운 항구도시 뱅쿠버에 도착한다. 시간차가 3시간이므로 시계바늘은 3시간 뒤로 돌려놓는다.

국내여행이므로 입국수속도 없고 다만 비행기에서 내려 2층복도를 통하여 아랫층으로 내려왔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미 토론토공항에서 탑승권을 받은 사람은 2층 긴복도를 통과하여 출발 Gate(보통 25번내지 26번)로 가서 기다리면 되고 뱅쿠버까지만 탑승권을 받은 사람은 2층 C.P. 카운터에서 다시 좌석을 배정받는다.

뱅쿠버에 도착하는 시간은 현지시간 11시에서 11시30분사이이므로 출발시간 하오2시까지는 약3시간의 여유가 있다. 이때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집에두고온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장거리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

면세점에서 술, 담배, 향수, 화장품등을 쇼핑할 수 있다.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물건은 비행기 탑승직전에 찾는다. 캐나다를 상징하는 각종 선물도 있다.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불루어지점개점

그동안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여온 저회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은 한국인 타운인 불루어 Street에 지점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개점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저회 은행은 본점과 불루어지점 양 점포에서 여러분을 더욱 성심껏 모시게
되었사오니 배전의애용있으시기 바랍니 다.
불루어지점에서는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 여러분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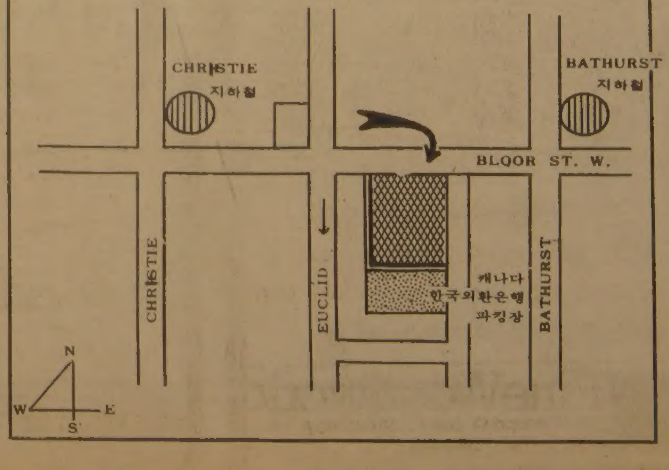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은행장 최승락
불루어지점장 김남수

— 아 래 —

영업개시일자 : 1982년 5월31일(09 : 00)
개 점 식 : 1982년 6월8일(11 : 30)
개점Reception : 1982년 6월8일(18 : 00~20 : 00)

불루어지점 주소 : 627 Bloor St. West
Toronto Ont. M6G 1K8
☎ 533-8593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82·83년도 온타리오주 예산안에 의거
판매세 적용품목 변동사항
〈5월14일 발효〉

82·83년도 온타리오주 예산안에 의거하여 지난 14일부터 새로히 판매세(7%)가 적용되는 품목중 협회원에게 해당되는 품목을 뽑았다. 변동되는대로 추가로 알려드린다.

1.잡지류

▲구독잡지, 학교와 도서관용 잡지, 신문안에 들어있는 잡지를 제외한 모든 잡지

▲소설, 포켓북은 계속면세

▲National Enquirer, Midnight등 신문과 유사한 간행물은 면세

2.학용품

▲공책, 종이, 도화지, 악보용지, 가방

3.위생·세탁품

▲영아피부용품, 휴지, 방취제, 부녀용위생대, 면도비누와 크림, 화장비누, 세수용품, 화장지

▲치약, 치분, 세치제, 치약품, 치솔(전기용제외), 실(Dental Floss)

▲면지나 반점제거 약품

▲세탁용품과 마루와 가구과탠재

▲세척용분말및 액체(벽, 마루,타일, 유리, 금속, 주방기구, 오븐, 개수통, 카페트, 커튼, 변소, 배수탱크용)

▲구두약,기타 세척제와 방취제 일체

4.사탕, 초코렛, 음료, 스넥

▲49센트이하 품목에 대한 면세가 취소되고 합계20센트 이상이면 과세.

▲포테이토·칩스, 팝콘, 소금을가한 콩류, 소금비스켓(Pretzel), 담아주는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등 스넥식품도 합계가 21센트이상이면 과세.

▲20센트짜리 2개사면 40센트+3센트(세금)=43센트, 즉 개개 품목의 가격에 관계없이 합계액이 21센트이상이면 과세.

▲요리용 초코렛, 소금이 없는 콩종류, 가정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은 면세.

5.꽃·나무·화초·화분

▲나무, 관목, 종자(조류용 포함), 묘목, 꺾은 꽃과 식물.

▲화초용 전구.

▲자라고있는 식물, 꽃및 용기.

6.호텔이나 모텔용 소모품

▲비누, 빗, 화장지, 성냥, 종이로 만든 욕실 맷트, 종이, 얼름통, 세탁물봉지, 구두닦이용 종이, 위생봉지, 컵 카바, 재봉기구, 샤워 캡, 가루비누, 변기덮는 종이, 변소용 휴지

〈공지사항〉

▲협회에서는 사무실을 새로 이전하고 단장한 보습을 회원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리셉숀을 6월1일(화) 하고3시부터 8시까지 갖기로 했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바란다.

▲5월17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되는 Coca-Cola의 Promotion에 관하여 실협뉴스에 공지된 내용은 회사에서 공문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의문점이 있으면 협회사무실로 연락해주기 바란다.

"항공정비사에게 일자리를"
—회원들의 적극협조 요망—

최근 한국일보 토론토에 보도된바와 같이 한국에서 취업이민온 항공정비사들이 캐나다 경제불황으로 취업을 못하고 생활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지난 5월16일 한인회 주관하에 한인사회 각종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강구한 끝에 해당기관 산하 업체에서 이 분들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실협회원 여러분들도 종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채용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정비사들은 교포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주면 어떠한일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한다. 회원여러분들은 이민초기의 우리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시련을 상기하면서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해 주기를 협회에서는 바라고 있다.

가게의 뒷일, 캐쉬등 종업원을 구하시는 분은 협회사무실로 연락하면 알선해준다.

〈집행부동향〉

5/14(금) Carolina Life & Accident Co. 간부진들과 면담코 과거 R.M.A.에서 실시하던 그룹별 상점보험, 생명보험, Dental보험등의 저렴한 요율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토의.

5/17(월)집행부 임원회의

◉사무실 이전오픈리셉숀 준비에 관한건.

◉실협 골프대회 준비에 관한건.

◉주소록 편집마감.

5/17(월) Peat·Marwick·Mitchell & Co.의 공인회계사 현영일씨와 M.Howard씨, 본협회를 방문코 5월14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예산안이 변경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으며 아울러 협회원 전원에게 그 요저를 팜푸렛으로 우송하도록 해 주겠다고 함.

총수입 16만달러 상회
연말이월금 $5만선
-실협수지결산 중간보고-

작년 11월의 총회이후 활기찬 활동을 전개한 집행부는 선거공약과 같이 전방기 6개월간의 수지 결산서를 회원들에게 공개 발표했다.

2차대전후 최대의 불경기및 공황을 치룬다는 요즈음 캐나다 경제침체 속에서도 82년도 수입예산을 $139,000을 목표했으나, 4월말 현재 벌써 $110,000을 육박하게 됐다.

앞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금년 총회시에는 약4만불의 흑자이월이 가능하다.

이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일치단결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수지결산서
81.10.1~82.4.30

수입지부

과 목	예산액	실제수입액
회비수입	17,500.00	17,150.00 (343)
공탁금	2,000.00	2,000.00
이월금	32,052.54	32,052.54
특별수입		
빵	30,800.00	21,209.23
아이스크림	18,000.00	10,378.31
밀크	19,250.00	15,567.65
잡지	3,600.00	3,464.42
광고수입	6,000.00	1,250.00
기타수입	7,000.00	3,575.07
이자수입	3,600.00	2,510.00
합 계:	139,802.54	109,15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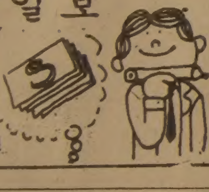
지출지부

과 목	예산액	실제지출액
직원인건비	31,170.00	19,833.37
인건비상여금	4,300.00	2,285.95
협회운영비		
사무용품비	2,000.00	1,357.29
사무잡비	500.00	420.24
비품구입비	5,000.00	123.51
옥외행사비	3,000.00	628.83
옥내행사비	2,000.00	00
회의비		
이사회비	2,000.00	1,898.80
임원회비	2,000.00	741.56
총회비(81년)	4,000.00	4,623.25
포상비		
포상비	1,000.00	773.35
기념품비	1,000.00	63.09
공공요금		
임대료	5,000.00	2,170.00
전화료	1,500.00	925.67
우표	2,000.00	950.24
보험료	500.00	42.50
어카운팅	1,500.00	1,570.00
협동조합추진비		
협동조합추진비	11,282.54	00
협동조합연구비	5,000.00	00
판공비		
기부비	7,000.00	2,500.00
경조비	2,500.00	860.00
활동비		
대외활동비	5,000.00	1,074.65
출장여비	2,000.00	1,475.83
상담실비	7,000.00	1,520.00
기획조사비	3,000.00	1,661.95
홍보비		
실협뉴스	18,350.00	11,422.50
일반광고	2,700.00	780.00
출판인쇄비	2,500.00	1,319.62
예비비	5,000.00	1,633.38
합 계:	139,802.54 (11 Mon)	62,655.58 (7 Mon)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봉사
단체손님 환영, 연가로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새로 나왔읍니다

"CANTRAK" 4 CASE CAN UNIT
쉽고 능률적인 POP판매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좁은공간을 최대한 활용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사무실이전공개리셉션

협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히 단장한 여러분의 사무실의 선을보이고자 아래와 같이 자축회를 갖기로 하였사오니 꼭 들르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6월1일(화)
오후3시부터 8시까지
장소 : 협회사무실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 1K8
한국은행건너편 외환은행2층)
533-7923

〈부탁의 말씀〉
장소관계로 축하화분은 사양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실협사무실 이전공고

실업인협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주소 : 627A Bloor St., West
Toronto, Ont. M6G 1K8
(한국관 건너편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
전화 : 533-7923 533-7924
533-8344(상담실)

사무보조원 모집

당협회의 업무량증가와 쿠폰취급 사무의 강화를 위하여 사무보조원(여자) 1명을 모집하오니 협회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모범敎員 1백39명 全대통령、초청치하

全斗煥 대통령은「스승의 날」을 맞아 15일낮 전국모범 교원 1백39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사진〉

이자리에는 盧泰煥씨(44·慶南咸陽문정국교교사)등 初中等교원 1백26명과 白泳基씨(50·全北農大교수)등 13명의 교수가 참석했으며 李奎浩문교장관、柳炯鎭대한敎聯회장등이 배석했다。

무장間諜 1명을射殺 海岸침투 1명追跡中

東草 서북쪽

對간첩대책본부(본부장 尹誠敏합참의장)는 15일 상오 3시40분께 강원高城郡縣內面猪津里앞 동해안으로 야음을틈타 침투한 북괴무장간첩 2명중 1명은 사살하고 잔당1명을 계속 추적중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따르면 2인조로 추정되는 무장간첩들은 이날새벽 동부전선 남방한계선남쪽3㎞、東草서북쪽 45㎞해안에서 아군의 해안초소지역에 침투하는것을 육군초병들이 발견、수류탄을 던지고 M16 소총사격을 가하여 1명을사살하고 1명은 바다쪽으로도주한것으로 판단돼 수색작전중에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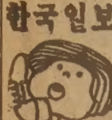
對간첩대책본부는 현장에서 AK자동소총1정、AK소총실탄79발、권총실탄 2발、잠수복2벌、물안경 2개、케논카메라2개、배낭2개、북괴제 세열수류탄1개、담요2장등 무기와장비49종 4백여점을 노획했다고 밝혔다。아군피해는 없었다。

"스승恭敬퇴색은 유감 고마움 다시깨달아야"

스승의날에 劉총리致辭

劉彰順국무총리는 15일 서울국립극장에서 열린「스승의날」기념식에 참석、치사를 통해『오늘날 교육자 여러분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여건은 결코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하며 더우기 君師父一體라는 전통적인 스승에대한 공경심마저 사회一角에서 퇴색해가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고『결코 화려하지도 않으며 刻苦의 노력만이 요구되는 어려운책무를 다하기위해 온갖고난을 이겨내면서 애쓰고있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자세는 사회의존경과 사랑을받아 마땅한것』이라고 강조했다。

劉총리는 이어 조상으로부터의 가르침인 스승敬愛의 미풍양속을 이어받고 교육일선에서 묵묵히 노심초사하는 스승의고마움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기리기위해 스승의날을제정、기념토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533·2361

英艦艇 브릴리언트號 아르헨機에 被擊 침몰

포클랜드海域 미사일등積載

【부에노스아이레스15日AP=聯合】영국의 미사일발사장치를갖춘 프리기트함 브릴리언트호가 12일 포클랜드해역에서 아르헨티나의 항공기공격을받고 침몰했다고 아르헨티나의 노티사스·아르헨티나통신이 고위군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아르헨티나군 최고사령부가 2대의영국헤리어 수직이착륙기가 14일상오 포클랜드의 포트스탠리공항을 폭격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나온것이다。

군소식통은 2백20명의승무원과 시울프 해대공미사일및 1대의 링크스 對潛헬리콥터를 적재한 브릴리언트호(3천5백톤)가 지난12일 침몰했다고 말했다。

2대의 아르헨티나 스카이호크 전투기가 브릴리언트호공격중 격추되었으며 조종사들이 사망한것으로 보도됐는데 아르헨티나군사령부도 항공기및 조종사가 희생됐음을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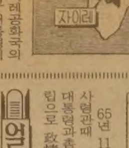
아르헨 補給船 無線交信 끊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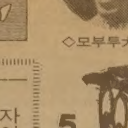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5日UPI=聯合】아르헨티나정부는 15일 포클랜드군도에대한 아르헨티나의 보급선인 이슬라·데·토즈·에스타도스호와 본부의 무선교신이 끊겼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선박을 찾기위한 집중적인수색작업이 시작됐다고말했다。

한편 영국측은 동서포클랜드 사이의 산카를로스 해협에서 지난11일 새벽 한척의 아르헨티나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바있다。

자이레 大統領 6월7일 訪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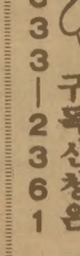



◇모부투大統領

아프리카 자이레공화국의 모부투·세세·세코 대통령이 全斗煥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15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3泊4일의 滯韓기간중 全대통령과 최근의 국제정세와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자이레는 면적이 2백34만㎢로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수단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2번째큰 나라로 공업용 다이어먼드 코발트 銅 朱錫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인구는 3천만명、수도는 킨샤사。


구독신청은
533-2361

얼굴 — 자이레共和國 모부투大統領

雄辯능하고 女性에큰人氣

65년 11월 콩고軍 총사령관때 당시 카사부부 대통령과촘베수상간의 대립으로 政情이 불안하자 無血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52세의 軍출신。

원만한 성격인데다 웅변이 능하고 용모도 준수하여 국민들 특히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집회때는 꼭 표범가죽의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는 멋장이기도한데 모인사람들이『모부투 예』라고 환성을 지를때는 지팡이를 높이쳐들어 답례하는 것이습관이라고。

「모부투·세세·세코·쿠쿠·응벤두·와·자·방가」라는 길고긴 그의 정식이름은「우는 장닭 누구도 막을수 없는 連戰 連勝의 戰士」라는 뜻。

현부인 보비·라다와와는 80년5월에 결혼했으며 자녀는 13명。학력은 중학교 중퇴이지만 책을 손에서 떼지않는 독서광으로 한때 기자생활을 했다。취미는 독서 테니스 음악감상 무용등 다양하다。

두前銀行長·私債업자등 9명拘束

大檢 林在琇(朝興)·孔德鍾(商業)씨…前·現지점장등 4명도

◇구속된 林在琇전조흥은행장(右)과 孔德鍾 전상업은행장(左)。

"共榮·日新회장도 拘束검토 背後여부搜査 곧 全貌발표"

李哲熙·張玲子 부부의 거액어음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15일 하오 林在琇 前조흥은행장、孔德鍾 前상업은행장등 두 행장을 업무상배임및 배임수뢰혐의로、조흥은행 전德壽지점장 金宣壽씨、현德壽지점장 金沐鎬씨、半島지점장 徐斗寅씨、본점영업부장 李斗淳씨(전半島지점장)등 은행관계자 4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사채업자 金鍾茂씨등 3명을 단기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林前조흥行長 1억5천만원 收賄 판명

세私債업자 어음割引 百億씨 부당이득

이로써 이번 어음사기사건과 관련、구속된사람은 지난 5일 구속된 李씨부부를 포함、모두11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두 은행장을 철야심문한끝에 張여인의 알선으로 두은행이 共榮토건과日新제강에 대출해준액수는 모두 1천9백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대출액 가운데 대부분은 무담보대출로서 은행대출규정의 관례를 무시한 것이며 결국 미수채권을 남김으로써 은행에 손해를입혀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것이다。

검찰은 은행장2명을 심문한 직후인 15일새벽 朝興은행간부들도 연행 조사했는데 지점장들이 관계기업들에 대해 무제한으로 어음장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이들에게도 강제수사를 펴게 된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피해자로만 알려졌던 共榮토건과 張여인이 공모했을 가능성이짙은것으로보고 관련기업체간부인 共榮토건의 邊康雨회장과 邊泰洙상무、日新제강의 朱昌均회장등 기업관계자들도금명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은행간부 6명과 사채업자3명등을 구속했지만기업관계자、배후세력 관계자등도 계속수사해 형사처벌 대상자를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간부들의 비위사실은 나타났지만 대출과정에서 배후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확증을 잡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배후세력에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타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배후관련자들을 직접 소환、빠른시일내에 수사전모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의하면 전朝興은행장 林씨는 張여인으로부터 편의제공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고 전商業은행장 孔씨는 5백만원을 각각받았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편 구속된 사채업자 3명은 張여인에게 한사람당 5백~6백여억원의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1인당 1백여억원씩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文相賀변호사 選任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李哲熙·張玲子부부가 15일 文相賀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선임했다。

임시國會 소집 17일 再論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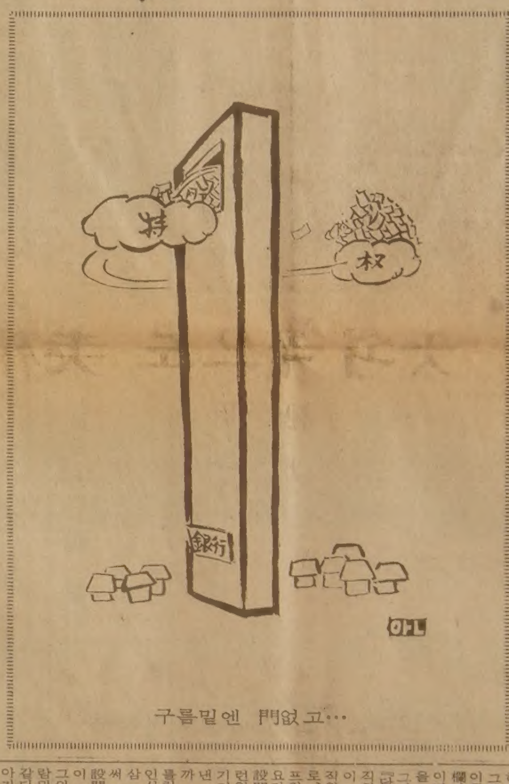
民正·民韓·국민당의 3黨총무는 15일 張여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발표가 나온뒤 이를 토대로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키로했다。

3黨총무는 이날상오 국회에서 張여인사건의 국회처리문제를 논의한끝에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17일 상오10시 다시 총무회담을열어 검찰의 수사진척상황을 점검한뒤 구체적인문제를 재론키로했다。

駐韓 美사령관 세니월드 任命

【워싱턴14日=聯合】레이건 미대통령은 하와이주둔 미태평양군사령부 부사령관 로버트·W·세니월드 육군중장(51)을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 임명했다고 美국방성이 14일 발표했다。

社会漫評



구름밑엔 門없고…

「私債金融회사」檢討

經濟長官회의 週內 수습策등 발표

정부는 15일 金俊成부총리주재로 긴급경제장관협의회를 열고 사채파동의 수습방안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채파동으로 인한 경제각부문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사채양성화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강력한 경기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미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완화、3년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5%로 인하함과 아울러 公債발행을 늘려 시중의 자금공급을 확대키로하는 내용의 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바있는데 이번사채파동으로 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이같은 미지근한 시책으로는 침체된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보고 양도세의완화、공채발행이외에도 자금공급을 대폭 늘려 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로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고위당국자는 유동성이 빠른 私債시장이 위축됨에따라 경제계는 훨씬많은 통화공급이 요청되고있다고 전제、사채파동이 수습될때까지는 안정계획에 구애받지않고 충분한통화를 공급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통화안정책은 파동이수습된 이후에나 고려될문제라고 덧붙였다。

地平線

▶은행에서 편지가 왔다。정중한 인사장을 곁들여、회신봉투와 함께、設問紙가 들어 있다。직장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여론을 조사한다는 얘기다。많지 않은 질문이었지만、『아하…』싶은 내용이라 재미가 있다。▼질문중에 이런 것이 있다。『대출신청은 누구를 통하여 하셨습니까?』答欄의 例示는 ①은행직원 ②친지나 친척 ③은행과 관련있는기관의 직원 ④중개인(대서소·복덕방·브로커)의 넷이다。은행대출은 누군가를「통하여」하는 것이고、그러자면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 지를 알것도 같다。答의 ③과 ④가 李哲熙·張玲子씨사건을 연상시킨다。▼대출을 받은 뒤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다음 물음이 보여준다。『정화운동 이후 담당행원과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읍니까?』答項은 셋이다。그 첫째、『담당직원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대여해 준일이 있었다』、그런일이 있었다면、그 직원이름과 금액을 적어달라는 空欄이 달려 있다。별난 양심이라도 촉구한다는 이 空欄을 메워줄 고객이 있을까。▼그다음 答項이 더 재미있다。『담당직원으로부터직접、또는 직원의 소개로 사채를 쓴일이 있었다』역시 있었다면、「직원이름과 금액」。마지막으로、『담당직원 요청으로 골프접대를 한 일이 있었다』요지경 같은 얘기들이지만、設問을 그렇게 했을 때는、이런일이 종종 있어왔다는 얘기이겠는데、적어도 設問을 낸 은행장은 지금도 그럴까 미심쩍어 하고 있는게틀림없다。▼그런데 設問紙 인사장의 은행장 이름이 새삼 눈을 끈다。그는 지금 前은행장이 된사람이다。이 자리를 내놓은 것이다。며칠사이 設問을 우송하는 그와 또 다른 前은행장 한사람의 얼굴이 신문에 대문짝같다。국회에 참고인으로 나아가고、그 길로 검찰에 불려가고…。그들은 국회에서 입을 모았다。재직중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은 받은 일이 없었다…。▼그들은 앞서같은 設問紙를 돌이대도 떳떳한 사람일게 틀림없다。前은행장 한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다。『李·張부부가 구속되지 않았더라면、예정대로 어음이 모두 결제됐을 것이다』그말대로라면、검찰의 섣부른 짓이 공연한 사단을 빚은 셈이다。진상을 밝히자고 드는 여론과국회、정부가 모두헛소리를하는 꼴이된다。그보다궁금하기는 그가、그많은 어음이「예정대로 결제되리라고」믿게된 그「배경」이다。▼設問紙와 신문지를 번갈아 보며 생각한다。—모든 사고는 방만해서 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영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이화 봄맞이야유회

이화여고 동창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봄맞이야유회를 갖고저 하오니 동창여러분들과 가족들 참석하시어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언　제 : 1982년6월5일(토) 11시 정각
어디서 : DOWNSVIEW DELLS PARK (ON SHAPPARD BETWEEN JANE & KEEL)
무엇을 : ● 맛있는 음식과 왕성한 식욕을 요함.
● 한 가정에서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에 POTLUCK형식으로 각 가정에서 한 가지씩만 해오시기 바랍니다.
● 불고기는 동창회에서 마련함.
＊야유회에 관한 문의나 차편이 필요하신분은 연락바랍니다.
● 송민자(MRS. SHIN) 494-4906
● 송영더(MRS. IMM) 293-4949

이화여고 동창회
회장 송민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82.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집회

철인 파스칼은 인생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읍니다. 저마다 성격이 있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인생들은 주님을 떠난 방랑자가 되었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 모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하겠읍니다.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지회 김선운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셔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제 :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요한복음 6장68절)
강　사 : 목사 김선운(Ph. D)
일　시 : 5월21일(금)~23일(주일) 매일 저녁7시30분
장　소 : 벧엘교회당(401HWY와YONGE 동남쪽코너)
395 OLD YONGE ST.
주　최 : 세계복음운동 토론토 지회
THE GOSPEL TO THE WORLD INC.
TEL : 221-1382(교회) 496-2967, 431-7391

《강사소개》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졸업. 미국 체스남리및 규니드대학교종교철학교수 역임. 필라델피아북부한인교회담임목사. 세계복음 운동 회장.

정기총회 및 야유회 공고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온타리오 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및 야유회를 갖고저 하오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5월29일(토) 오전11시
장　소 : ROWNTREE MILL PARK (공원입구가 1블럭 NORTH OF FINCH, ON ISLINGTON)
기　타 : ○점심은 각자 준비(단 : 대학생멤버는 점심을 제공함)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유흥과 상품이 마련되 있음.
문의처 : 김종상 B) 592-2881
R) 881-8349
신복균 B) 667-3598
R) 494-4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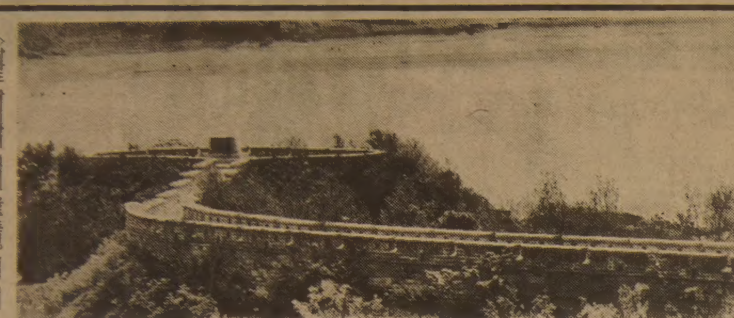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온타리오지부장 신복균

「韓·美100年」을 照明한다

한국일보 (특집판)

歷史의 變貌 現場을 가다

江華「異樣船혈전」에서 仁川「友誼잔치」까지



◇강화도 광성진에 복원된 용두돈대.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곳이었다. 1977년 복원됐다. 【李昌淳기자찍음】

韓美修交1백년을 맞는 인천항은 修交미국인 4세를 맞은 기쁨에 들떠있다. 美합중국전권대사 로버트·슈펠트 提督이 은둔의 나라 조선국과 우호통상조약을 맺으려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때가 1882년 5월11일. 그후 10여일간의 우여곡절끝에 朝鮮땅제물포의 한 임시천막에서 韓美양국대표간의 韓美수호통상조약이 도장찍어졌던 것인데 그로부터 1백년을 보낸 仁川은 지금 새 면모를 갖춘채 修交세대의 4세 미국인들을 맞으려하는 것이다.

남북전쟁당시의 으리으리한 해군제독服裝을 하고 美國함 스와트라호에서 내리던 로버트·슈펠트대신 로스앤젤레스에서 여행사직원으로있는 제독의 高손자 로버트·슈펠트4세가 평범한 시민의 예의를갖추고 인천에 오며 존·H·마이켈저스같은 6·25의 盟將을 포함한 또다른 인연의 修交미국인 4세들도온다.

수교기념일 전야제에는 仁川거주 74명의 미국인들이 별 특별찮은 체재 이유 하나만으로 융숭한 손님대접을 받는다.

지난19년간 인천을 중심으로 醫療선교사업을 해온 미국인할머니 렌나·벨레·로빈슨은 인천시청에서 보내온 리셉션초청장을 기자에게 보이며『이게 웬 침대속의 밥이냐』며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로빈슨이 말하는『침대속의 밥』은 아마 우리말의『자다가떡얻어먹는다』를 누가 직역해준 것인듯했다.

인천 거리거리에는『기념 한미수교 1백주년』기념현판이 로터리육교마다 걸려있고 슈펠트제독과 조선측全權大官 申櫶이 도장을 찍던 그 海邊가의 장막터에는지금기념탑을기한내 준공키위해 한창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있다.

이곳은 沿岸저편으로 율도, 작약도 그리고 멀리 범섬(虎島)으로 펼쳐있는 水路가 한눈에 들어오는 옛 花島鎭터.

洋艦들이 출몰하던 조선조말기 그당시에는 조선수준으로는 제법 탄탄한 直擊砲도 놓여있었고 兵營도 건설돼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대표 로버트·슈펠트와 조선대표 申櫶은 제물포바다가 훤히 보이는 野에 천막을 치고 그속에서 사인을하고 도장을 찍었다.

기록에는 修交조인당시 슈펠트가 타고온 스와트라號 그리고 조인을 지키기 위해 스와트라號보다 먼저 온 淸國軍艦3척이 虎島근처에 정박해있었다고 적어놓았다.

화도진터에서 보면 蘭島까지는 시야가 멀다. 그러나 丙寅, 辛未 두전쟁때 프랑스, 미국군이 바다兵營으로 쓰던 작약도、영종도 앞바다는 빤히보인다.

조인식에 따라왔던 美·淸군함들도 분명히 작약도 앞바다쯤까지 접근했을듯하다.

도장을 찍은 조선의全權大官 申櫶、全權副官 金弘集은 펄이부리입구까지 주둥이를 내밀었을법한 육중한 戰艦을 대하고 무슨 생각에 젖었었는지.

韓美조약은 인천앞바다의 干滿만큼이나 거센 파고를 넘기면서 이루어진것이었다.

미국과 한국이 처음 광 부딪쳤던 것은 1866년의 제너럴·셔먼號사건. 어설픈 통역관하나를 태우고 통상을 요구하며 大同江상류로 거슬러올라왔던 셔먼호는 통상에 성공하기는커녕 배가 불살림을 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사건이 일어난후 석달쯤뒤인 1866년 11월7일 뉴욕 타임즈紙도 이 사건을 한국관계최초의 기사로 보도했다.

『런던發11월6일 火曜日. 미국船 제너럴·셔먼이 코리아(COREA)에서 좌초됐다. 배에 타고있던 40명은 그곳 토인들에의해 살해됐다』

마침 미국은 南北戰爭의 뒷수습으로 어수선한 때였다. 아마도 한국은 좌초된 선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토인들의 나라쯤으로 이해된후 이내 관심권밖으로 밀려났던것 같다. 뉴욕 타임즈紙에는 셔먼號사건이후 辛未사건까지5、6년간 한국관계기사를 한줄도 찾아볼수 없다.

韓美간의 두번째 만남도 불행 그것이었다.

그란트美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한미통상조약을트러왔던 프레데릭·로 駐中國美공사와 美아시아함대사령관 로저스는 江華島를 공격하여 한바탕 싸움만치르고 소득없이 돌아섰던 것.

강화도는 이때의 전투흔적을 보관하고 있다. 旗艦 콜로라도號를 비롯, 5척의 함대를 끌고 작약도앞바다에 정렬한후 로저스提督은 선발대를 보냈다가 강화도 廣城津、德津、德浦의 조선해안포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美함대는 10일쯤후 천세를 정비하여 전함 3척에 陸戰隊 4백50명까지 동원해 일종의 보복공격을 했다.

강화도 廣城津 복원유적지에 이때 전사한 中軍 魚在淵, 그의 동생 魚在淳의 순국비가 서있으며 이름모르는 5명의 殉義墓도 다듬어져 있다.

통칭 손돌바다라고 부르는 폭7백m쯤의 협로를 두고 강화도쪽에 광성진, 바다건너 김포군쪽에 德浦가 있는데 오늘날의 1백5밀리砲 두서너대만 있으면 水路를 철통같이 막을만한 천연요새로 돼있다.

광성보터에서 아래 용두대 쪽으로 걸어 내려가다보면 오른쪽 허리춤에 움쭉 들어간 계곡같은 곳이 있고, 이곳에 5門의 포자리가 잡나무숲에 가리워져 있다.

"叛逆的干滿"의 港口엔 大型도크

花島鎭천막터엔 修交碑…「內地조인」으로「獨立」과시

불룩한 낙타혹모양의 흙봉우리 사이에 있는 5개의 포자리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砲身이 바로 바다위로 돌만하고 干潮때는 바다와 제법 12~13m 떨어진다.

마침 눈앞의 바다는 건너편산모퉁이를 돌아오게 되있어 進入船은 이쪽포대를 미리발견치못하고 들어오는대신 포대쪽은 정면으로 侵入船을 사격할만한 곳이다.

적말 오늘날 포병학교의 훈련병이라도 저정도의 지점은 놓치지 않을것이다.

남북전쟁의 베테랑들이 포함된 로저스 美해군부대들이 강화요새의 이런 지형위험을 몰랐을 턱이 없다.

기록은 다만 조선군이 1차공격을 물리쳤고 2차공격에서 鎭을 점령당했다고말하고있을뿐이나 그 소위 1차공격이란것이 이쪽포대의 성능을 시험해보는 陽動작전쯤이었음이 틀림없다.

강화도 갑곶돈대、초지진등 복원된 유적지에 전시된 紅衣砲、中砲、小砲들을 보면 조준기조차 없고 砲身도 짧은 그저 골동품格정도다. 가장큰 홍의포는 최대사거리가 7백m라고 하나 비지떡 같이 울퉁하게 빚은 대포알이며 날을 당겨 화약을 폭발시키게돼있던 砲身구멍이 아무리 생각해도 南北전쟁을 치룬 美해군정예부대의 적으로는 어울리지 않은것같았다.

로저스美해군제독은 조선沿岸砲臺의 대포알이 형편없는 非과학적사격을 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몇번씩 無血통상을 시도해 보다가 결국 남북전쟁의 베테랑 블레이크중령을 선발대로 하여 廣城鎭을 짓밟았던것이다.

韓美어느쪽으로 봐도 무모한 전쟁이었다.

뉴욕타임즈紙 1871년7월17일字에는 辛未전쟁의 상보와함께 존·로저스提督이 해군장관에게 보낸 전쟁보고서가 게재돼있는데 보고서에는 조선측전사자중 시체확인한것만 2백43명이며「놋쇠포가리같은」(Principally small brass pieces) 병기 4백80점을 노획했다고 말했다.

美軍은 섬채에 처음 쥐어들었던 매키中尉와 다른 2명이 육박전끝에 창에 찔려 죽었다고 쓰고있다.

로저스제독은 당시 섬채에 있던 조선군수가 1만1천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후일의 전시상보를보면 많은 조선군이 물에 빠져죽고 목을 매어 죽은것으로 돼있다.

美해군전사는 이 무모한 전쟁을「기억하기 싫은·전쟁」으로 기록하고 있다지만 옛진지를 돌아보는者의 마음은 전쟁의 어리석음에 서글픔같은것을 느낄수밖에 없었다.

草芝鎭복원진지의 안내원 김연숙양은 기자에게『미군이 쳐들어왔을때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밥을 해먹고 있었는데 대포알이 마구 진으로 쏟아져 와 엄망이 됐대요』라고 말했다. 안내원의 그『들은 옛이야기』에 그럴듯한 상상이 갔다.

조선군의 대포알은 그림자도 못가는 거리에서 正조준으로 쏘아대는 美해군의 공격에 鎭地軍이 혼비백산했을것은 당연한 일。5척의 大戰艦을 끌고와 실로 엉터리같은 전쟁을했던 美아시아극동함대사령관은 정복한 광성보의 초라함에 스스로 놀랐던지 곧 인천앞바다를 떠나버렸던것이다.

어떤者가『미국에게 제한 나라는 잘산다』고 말했다던가。2차대전후의 독일、일본이 저렇게 부흥한 것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기때문이라고 말해 심심찮은 얘깃거리가 됐다지만 오늘날의 江華는 그동안 스스로 가꾼 풍요로 기름이 흐르는듯 하다.

광성보에서 덕진진으로 가는동안 길에서 만난 金덕수씨는『네, 강화도 이제 잘살아요。인삼재배는 한몫가고 있지만 강화도가 축산명소로 되고있고 철사이에 부업으로 짜는 花紋席도 강화를 살찌게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젖소、肥肉牛등의농장이 들어선것은 그저 10년이내의 일이나 벌써 그富가 강화에 쌓이고있다고 축산업을 한다는 金씨는 말했다.

세계최강군이던 蒙古침공군도 넘지못하던 경기~江華海面이 6백96m의 긴 다리가 놓여짐에 따라 강화는 이제『건너지못하는 섬』에서 아름다운 富饒의 별장지로 변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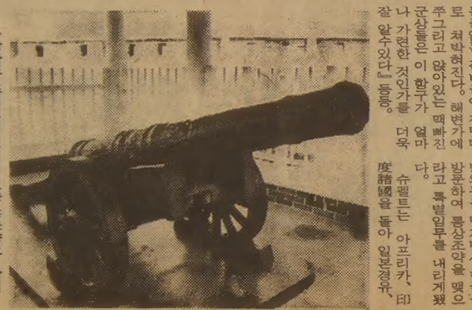
강화섬에서인천을가는길은 옛날에는 海路를 이용했었단다. 그러나 지금은 陸路가 가까와져 아예강화―仁川연락선이 없어졌다.

仁川。60년대부터 급격한 변모를 하기시작한것이지만 한미수교1백주년을 맞은 直轄港都의 모습은 1백세월이 무섭게 긴 시간임을 말해주는듯하다.

修交조인 4년후인 1896년 고종의 外交고문으로 왔던 미국인 윌리엄·샌드(한국명 山島)는 그의 저서『사사로운 추억들』(Undiplomatic Memories)에서 그가 牛島에 첫발을 내디뎠던 제물포全景을 이렇게 소개했다.

『제물포는 험난한 수만리여행끝에 첫발을 내딛는 항구로서는 너무 실망적이다。17피트나 되는 干滿차를 기다렸다가 겨우 항구에 도착하면 맞아주는것이라고는 벌거벗은 야산뿐이다。나무도 수풀도없이 벌거벗었으며 죽어버린 갈색모래、검은바위 이런것들밖에 없다。干潮로 바닷물이 밀려가버리면 개펄에는 볼품없는 짐배들이 제멋대로 처박혀진다。해변가에 주그리고 앉아있는 맥빠진 군상들은 이 항구가 얼마나 가련한 것인가를 더욱 잘 알수있다』등등.

◇로버트·슈펠트제독이 韓美조약체결을 위해 첫상륙했던 仁川괭이부리나루. 【韓隆기자찍음】



◇강화도 초지진에 전시돼 있는 辛未양요 당시의 조선군대포.

修交당시의 仁川인구가 1천1백46세대에 4천7백5명.

「반역적」(Treacherous)이라고까지 표현되던 항구의 干滿差는 대형도크의 건설로 극복돼 언제든지 이 도크를 통해 仁川港에 배가 들어올수있다.

슈펠트가 들어왔던 괭이부리선창은 이미 도시대형화에 밀려 연안부두로 그 주요기능을 빼앗기고 지금은 율도, 작약도등에 다니는 통통배만 오가고있다.

괭이부리를 따라 仁川港연안에 들어서 있는 大型유리공장, 자동차공장, 전자공장등은 修交백년의 今昔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증명한다.

어쨌든 韓美間의 두번에걸친 상상의 비극이 슈펠트제독의 韓美우호통상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는것은 위대한 결말쯤으로 이해될만한것.

韓美수호조약의 제물포 체결은 적어도 두가지面에서 歷史를 찾는 젊은 史學徒들의 가슴을 흥분하게해주고있다.

하나는 슈펠트提督이 淸國의 끈질기고 강력한『조선은 中國의 屬邦이다』라는 문구삽입을 끝내 거절하고 독립국으로서의 대등한 조약을 韓美간에 성립시켰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은둔국이 西洋에 첫문호를 여는 이 韓美修交인이 비록 천막이긴 했지만 韓半島內地땅에서 韓美대표만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것이다.

문헌들을 들춰보면 韓美修交를위한 슈펠트의 노력이 대단했던것은 금방 알수있다.

辛未양요 7년후인 1878년캘리포니아출신上院의원 아론·서전트가 韓美통상조약을 주선할 全權大使를 임명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上院외교위에 회부되고 이어 海軍省이 로버트·슈펠트제독에게 아시아·아프리카·印度洋대륙순방의무를 맡기면서 한국을 방문하여 통상조약을 맺으라고 특별임무를 내리게됐다.

슈펠트는 아프리카、印度諸國을 돌아 일본경유、東萊로 들어와 조선측에 통상제의를 해봤으나 東萊府使 沈東臣에게 한마디로거절당했다. 그러나 그는 통상노력을 포기하지않고 계속 日本外務省、淸國의 실력자 李鴻章등을 방문하면서 근2년간 한국의『열리지않는문』을 두들겨댔다.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1881년5월 北京대사관의「특별임무처리관」의 자격으로 다시와 이번에는 李鴻章과만 협의하면서 결국 韓美修交를 트는데 성공했다.

놋쇠쪽으로 美精銳軍맞서 全滅

NYT紙 첫 보도"한국土人" 찾아오는 슈펠트4世

슈펠트의 1次여행때는 사실 淸國이 조선으로하여금 미국과 국교를 열도록 여러번에걸쳐 적극적인 對조선설득작업을 폈었다. 이때는 주로 러시아南下세력을 미국을 끌어들여 제지하자는 뜻이었는데 조선국의 끈덕진 기피책으로 성공을 보지못했던것.

그러나 조선의 對美태도가 약간은 누그러지고 일부개화파들이 韓美修交를 은근히 밀때쯤인 슈펠트2차방문때는 淸國은오히려종재역할에 미진한 태도를 취했다. 러시아와의 和解가 어느정도 성립됐으므로 조선을 미국과 연결시킴으로써 조선에대한 淸國의영향력을 잃을지모른다고 계산했던것.

스스로 조선의 代父쯤으로 처신했던 淸國의 直隷총독 李鴻章은 슈펠트의독촉을 받고 수교교섭조건으로 조약문 1조에『조선은 中國의 屬邦으로서…』라는 문구를 넣을것을 주장했다. 그는 韓美修交조약문까지 초안했다.

슈펠트는 이『屬邦』문구를 정면 거절했던것.

淸國의「조선속방론」에대해 미국으로하여금 분명한 선을 긋게한 사람은 在北京美대리대사 체스터·할콤이었다.

할콤대리대사는 슈펠트에게『중국과 조선은 宗主―屬國관계가 아니다. 強者와 약자의관계일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슈펠트는 中國의 속방론주장은 淸朝양국문제일뿐이며 만일 이런조항이 삽입된다면 美의회의 조약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옹현한 中國은 그러면 조약문대신 조약체결후 조선王이 美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쓰게하고 이 친서에『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것을 표시케하잔』는 안을 내어 미국측의 묵인을 받았다.

淸國을 대표하여 仁川으로 슈펠트를 따라왔던 李鴻章의 外交보좌관 馬建忠은 조선王의 이름으로『조선은 中國의 속방』이라는 내용의 소위 親書를 써 조선관리를 시켜 일정한 절차를 밟게하고 이를 곧 슈펠트를 통해 미 대통령에게 전해줬다.

뒤에 밝혀진 일이지만 당초 약속했던 친서일자도 조약체결후가 아닌 체결전날짜로 돼있었다.

어쨌든 슈펠트는 기본적으로는 韓日간의 丙子수교조약과 유사한 조약문을 고집하여 대등한 독립국으로서의 韓美間 우호및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던것.

조약체결일이 1882년5월22일。슈펠트는 처음 해군성으로부터 韓美통상임무를 부여받은후 4년에걸친 긴 外交노력을 했던것이다. 그는 조약체결에 성공한 이틀날 급히 仁川港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후 곧 病死했다.

韓美修交조약이 제물포 천막속에서 조인됐다는것은한국인의 끈기의 결과라고밖에 볼수없다.

조약을 주선한 李鴻章은『조선은 中國의 속방이다』라는 귀절이 든 조약초안까지 마련해놓고 속히 조약을 체결할 全權大臣을李鴻章의 총독부가 있는 중국 天津으로 보내라고 조선에 독촉하고있었다.

당시 조선조는 아직 西洋에대한 의혹이 완전히가시지않은데다가 李鴻章의 屬邦論에 상당한 논란이있었을것으로 유추된다.

어쨌든 조선朝는 禮曹의 제3서열쯤되는 參議官 金允植을 領選使란 자격만붙여 天津에 보낸후 李鴻章―金允植회담이 여섯번이나 계속되면서 李鴻章의全權大臣파견을 요청받았는데도 한마디 대답도없이버티고있었다. 약소국의 현실과 버팀대로 버텨들아는 어떤 勇氣가 한국정치의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었음직하다.

슈펠트는 李鴻章의『곧 조선全權大臣이올것』이라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1년가까이 中國에서 보내다가 중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선과 직접 대면키위해 5월3일 단연 天津을 출발하여 조선땅으로 향했던것이다.

이때 仁川앞바다에는 슈펠트가 타고온 군함 스와트라와 馬建忠, 鄭汝昌이 끌고온 淸軍艦3척이 멀리 정박하게 됐던것이다.

조선왕실은 미국배에 대해 음식물공급지령을 내리는등 거듭 몇번의 실랑이를 벌인후 슈펠트를 花島鎭천막에 내리게하여 중국사신들이 아직 승선중인 가운데 韓美間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바로 지금 韓美수교비가 세워지는 仁川市 東區 花水一洞 134번지의 花島鎭터에서 1백년전에 있었던일.

서양과 맺은 첫조약이 中國땅이나 美軍함상이아닌 조선땅內地에서 조인됐던것이다. 韓美조약은『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조선은둔국이 서양과 처음맺는 조약이었으며 조선땅內地에서 맺은 처음있는 對外조약이기도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있는 花島鎭터 현장에는 마침 金積會인천시장이 柳在川東區구청장과함께 현장을 돌러보러나왔다.

82년에는 우선 기념비만 다듬지만 86년까지 이일대를 공원으로 개발하여 역사를 새롭게할것이라고 말했다.

멀리 슈펠트의 스와트라號가 정박했을법한 작약도 앞바다에는 마침 中東에서 막들어온 15만톤급 大型유조선이 栗島의 석유저장탱크에 이어진 送油管을 통해 기름을 품고있었다. 【鄭遠和기자】

◇의료선교 19년에 뜻밖의 韓美수교 1백주년기념 리셉션에 초대를받아 기쁨을 감추지못하는 로빈슨할머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2>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㊻

『나는…』

인재는 마음이 오므라드는걸 상징이라도 하듯이 고개를 한껏 오므라뜨리면서 우울하게 말했다.

『나는 네 지참금을 노린적 없어。너한테 지참금이 딸렸다는 것도 몰랐어。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좋아』

『그건 자기가 아직은 순진하니까 그런거야』

『아직은 이라니?』

인재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잔뜩 섞여있었다。그걸 이해하고도 남는다는듯이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나빠하지마。자기순진한거 빼면 무슨 매력이 있다고…』

『제발 날 잡고 놀려고 그러지마。생각할수록 느이 족속들은 불쾌한 괴짜들이야』

『불쾌한 괴짜?』

『아니면? 돈많은데로 시집을 가면 돈을 더 얹어주고, 빈털터리한테로 가면 줄 것도 안주겠다는 게 말이냐?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반대여야 하는거 아니니?』

『역시 지참금 얘기? 그게 세상물정인걸 어떡해? 왜 있잖아。부잣집에서 큰일을 치른다면 부조금이 두둑하게 들어오고、어려운 집 대사에는 부조금이 얄팍한 것과 같은 이치지 뭐。그런 뻔한 세상물정을 거역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고독한 일이라는걸자긴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었어?』

『글쎄…』

인재는 고개를 오므린채우울한 눈길로 수지를 지그시 노려봤다。수지가 얼핏 그의 눈길을 피했다。인재는 그녀가 세상물정을 거역하는게어렵기만한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지、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니?』

인재는 흐릿한 소리로묻고 얼굴을 찌푸렸다。그는 부질없는 짓인줄 번연히 알면서 미련을 못버리는 자신에게화가났다。

『자기 아직도 내가 뭘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아냐、관두자』

『자기 화 났어?』

『아니』

『자기 날 이해해줘야해』

『글쎄 관두라니까』

『자기 날 사랑해?』

『가봐。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가 먼저일어나서 찻값을 치르는 뒤에서 그녀는 연방 종알거렸다。

『자기 화났나봐。자기 정말 화났나봐』

『화 안났다니까』

밖으로 나온 인재가 한껏 너그럽게 말했다。

『바래다 줄래?』

수지가 인재의 팔장을 끼며말했다。

『여긴 느네 동넨데 뭘 그래』

『언젠 집찾아 갈까봐 바래다 줬나』

『날좀 내버려두렴。내 심정도 좀 이해해줘야지 않아』

『자기 마음 변했나봐』

『그게 바로 네가 바라던 바 아니니?』

인재가 수지의 팔을 풀어 저만치 떼어놓으며 말했다。

『어쩜』

등뒤에서 수지가 파르르입술을 떠는 소리가 들렸다。그러나 인재는 돌아다보지않았다。도망치듯이 그 동네를벗어난후에야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린 말을 내뱉었다。거짓말이다。온통 거짓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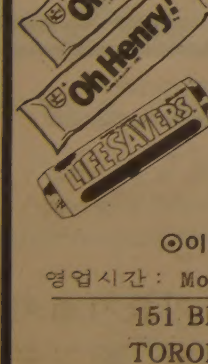
YOUNG SOOK '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 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ALLIS U-SAVE　CASH & CARRY

세일기간 : 5월19일~6월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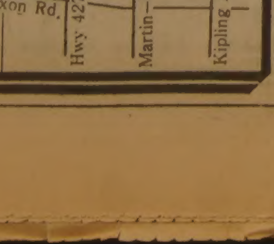


⊙모든 LOWNEY'S 초코레트바 Reg.36's	$9.45
⊙오·헨리 Reg 36's	$9.19
⊙Cadbury Thick Bars 36's	$13.07
⊙Rowntree Dairy Box 1Lb	$9.73
⊙Black Magic 1Lb	$10.61
⊙Life Savers	$4.09
⊙Hershey's Reg.36's	$8.99
⊙DELSEY Toilet Tissue 24/2's	$17.99
⊙HEINZ TOMATO Juice 24/10oz.	$7.99
⊙POP Wilson Product	$5.59
⊙Coke.7—Up	$5.99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영업시간 : Mon-Fri(8a.m.-4p.m.) Sat.(8a.m.-2p.m.)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신 발명품 : 코닥디스크카메라
⊙샷타만누르면됩니다

- 특수필림(15장까지)
- 5년이상 보증
- 완전자동화(후레쉬)거리, 촛점필요무)
- 저렴한 가격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New shipment, just arrived!

Remarkable KODAK disc 4000 Camera

緊張의 나날…"내일은 무슨일이 일어날까"

아르헨 從軍記者 눈에 비친 主要軍事都市의 표정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本社 李梓昇특파원 第4信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말비나스(포클랜드)분규는 유엔에서의 외교교섭진전으로 전쟁보다는 화평쪽으로 기울어지는 인상이 짙다. 또한 아르헨티나정부는 지난 2~3일전 부터 영국에대해 평화적 제스처를쓴데 신경을 쓰는듯하다.갈티에리 대통령은 13일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해서 납치되었다가 5시간만에 석방되었던 영국 템즈TV의 취재팀을 접견,『아르헨티나의 이름으로 불상사에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군이 조지아숄(영국명 사우드조지아)을 점령당시 포로로 잡았던 1백84명의 아르헨티나군 포로들이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선편으로 도착, 화평무드는 급진전을 보이는 것같다. 지난 9일이후 영국군이 분쟁지역인 포클랜드를 야간에 산발적으로 공격, 주둔중인 아르헨티나군과의 교전은 계속되고있다. 그런가하면 포클랜드지역으로 발진하는 아르헨티나남해안의 주요군사도시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리오가예고스, 리오그란데, 바이아브란카市등에서는 아직도 있을지모르는 擴戰에 대비, 긴장상태하에 놓여있다. 아르헨티나 종군기자들의눈을 통해 남대서양의 아르헨티나 전선표정을알아본다. 말비나스島(포클랜드)기사는『어느 종군기자의일기』라는 제목아래 지난8일부터9일까지의 긴장의 1주일을 기록한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15日=李梓昇특파원】

◇기동훈련중 野戰식사하는 아르헨티나 軍人 영국군의 본토침공가능성에 대비, 기동훈련중인 아르헨티나군의 야전식사。영국이 침공을 감행하면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越南이 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UPI】

포클랜드의 1週日

◆5월3일=아침은 매우 쾌청했다.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없었다. 군인들은 지난1일 영국군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보수작업하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요원들은 파손장비를 손질하고 있었다. 우리가 영국군이 투하해서 불발이된 폭탄을 촬영하러 해안으로 갔을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동반한 군인이 땅에 널려있는 인계철선을 밟은 것이다. 즉시 이군인은 주위를 세밀히 살폈다. 이것은 전에 말비나스섬에 주둔했던 영국해병대가 설치해 놓았던 지뢰였다. 하오에는 전투에 대비, 경계가 강화되는것을 느꼈다. 군인들은 새로 곧 다칠 영국군의 공격에대해 이야기했다. 군관계자는 10명의 영국군특공대들이 지난 1일 섬에 잠입했기때문에 특수부대요원들이 수색작전을편다고 알려주었다. 이들을 수색대는 주택지역, 또는 농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5월4일=날씨가 춥다. 아마 영상 5도 내지 7도는 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추위에는 이미 익숙해졌다. 푸에르토 아르헨티노(포트 스탠리)공항의 공습피해 보수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군인들이 비행기 활주로에 설치했던 위장물을 걷고 있었다. 첩보는 계속 발효되고 있다. 군인들의 사기는 높았다. 이들은 계속되는 전투에도 불구하고『영국군을 기다리는 동안 할일없이 밥만 먹어 살이 쪄서 걱정이다』라고 농담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1일의 영국군의 공습으로 주민 11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군의 공식 인명피해는 11일현재 전사42명, 부상 44명, 실종8명등 94명이다)

벨그라노號가 어떻게 침몰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5월5일=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깔렸다. 이곳에서는 겨울에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다. 안개가 섬전체를 덮고 있었다. 1m 앞도 보이지 않았다. 캄파냐병원은 부상자가 늘고있다. 부상자에는 군인도 있고 민간인도있다. 본토와의 통신은 정상적이나 아침에는 수신상태가 좋았다가 하오에는 점점 나빠져간다. 무선통신이 군인들의 본토에있는 가족들과의연락에도 사용된다. 가족들과 연락하려는 대기자들이 장사진을 친다. 전보도 많이 이용된다. 전신시설은 불과 몇시간만에 설치된 것이다.

◆5월6일=안개가 발밑까지 덮였다. 이런 기상에서는 비행기가뜰 수없을것 같았다.

◇근심스러운 表情의 英國系 현지주민들 아르헨티나군 장갑차들로 메워진 푸에르토 아르헨티노(포트 스탠리)거리를 거니는 영국계 현지주민들。엄마따라 나선 어린이가 근심스런 표정으로 장갑차를 유심히 바라보고있다。

모든病院 일반환자 撤收
政情불안해지자 新聞 날개돋친듯
家族들 安否연락 兵士들 長蛇陣

이곳 주민들은 활동시간이 제한되고있다. 아침에는 종전과같이 활동할수 있으나 하오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식료품점도 영업시간이 단축되었다. 시가지는 공습피해가 거의 복구되었다. 앞으로 영국군이 어떻게 공격해올것인지 기다리고 있을수밖에 없다.

◆5월7일=오늘도 짙은 안개가 끼었다. 영국군이 곧 새로운 공격을 해올것이라는 소문이 짙어가고 있다.

이곳에선 취재하기가 어렵다. 기동력때문이다. 포트스탠리지역의대부분의 차량은 군용으로 사용되고있다. 이번공습중 영국군은 제네바조약에서 사용이 금지된 특수폭탄을 사용한것같다. 이폭탄은 E.L.751집인 對人폭탄이다. 이폭탄내부에는 84개의 소형폭탄이 장치되어 여러 높이와 방향으로 폭파되는 무서운 살상무기이다. 일정한 반경안에서는 사람을 휩쓸어버린다.

◆5월8일=기상은 변화가 없다. 아직 전투뉴스는 없다. 이곳의 주요 방어무기의 하나는 레이다다. 이 레이다망이 비행기나 군함의 접근을 잡아낸다. 육안으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영국군의 공격을 기다리고있다. 내일은 일요일. 모두들 미사에 참석할 것을 기대한다. 하오8시. 아르헨티나 종군기자들은 우랄드·구스호텔에서 식사하기로 되어있다. 그때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자정전까지는 문을 잠그고 쉬는 도리밖에 없다. 창밖으로 하늘을 쳐다보아야 별볼일이 없다. 그러나 습관처럼 창가에 다가서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된다.

◆5월9일=기다리고 있던 것이 왔다. 첫번째 지축을 흔드는 진동은 새벽1시40분에 왔다. 영국군함대에서 쏘아대는 함포사격이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영국군은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 함포사격은 아침6시까지 계속되었다.

유언비어亂舞…전쟁실감
赤色경보속 복구작업도

◇코모도로리바다비아 (이곳에는 아르헨티나 軍의 남대서양 작전사령부가 있다)

지금은 하오8시. 모두가 일과를 마치고 귀가했다. 모두들 TV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상점에는 손님이 없고 식당도 파리를 날리고 있다. 이따금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이착륙하는 소리가 들렸다.

초음속인 미라지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면서내는 째지는듯한 파열음은 이미 시민들의 귀에 익어있었다. 모두가 걱정을 하고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있다.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고 군트럭은 밤늦게까지 시가를 질주하고있다.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고있다. 12만명의 주민들은 전쟁을 실감하는것 같았다. 1천6백명이 이곳에서 피난을 떠났다. 주민들은 공습경보가 울려올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훈련받아 익혀두었다. 모든 병원에서 민간인 환자들이 철수됐다. 병원은 이제 민간인중에서 응급환자와 출산임산부만 받는다. 주민들은 지역별 블록단위로 민방위대를 조직, 비상시구조와 응급조치를 무엇이나 할수있는 채비가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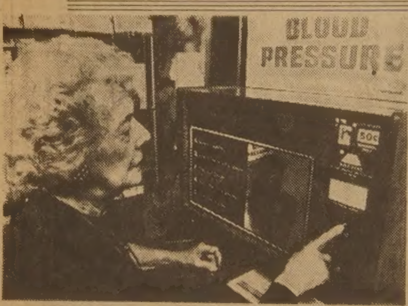
◇리오가예고스 포클랜드와는 직선거리로 6백㎞ 연안지역도시중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처음으로 전쟁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있다. 영국함대와 영국잠수함에 대해 희롱하는듯한 농담도 뚝 끊겼다. 어느누구도 戰況뉴스를 놓치려하지않는다. 주민들의 상당수가 리오가예고스市를 떠났다. 이곳 셀회사의 미국인직원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태가 수습되기를 기다리고있다. 최근까지 남아있었던 셀회사직원들 수녀, 엔지니어들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났다. 지난27일 외국기자들의 철수령이 내렸을 때에는 이곳주둔 제5사단장인 후에르토갈가이 이곳에 주재하고있던 12명의 외국인기자들을 소집, 통보했다. 그때까지 이곳에 주재하던 외국인기자들은 호텔밖의 출입이 금지돼있었다. 또한 이날 소집장소로 가는데도 승용차편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것은 외국기자들에게 시가지를 보지못하게 하기위한 보안조치에서였다. 이날은 아르헨티나 항공사소속 보잉737機3대가 3번이나군인들을실고 포클랜드로 떠났다. 수십명의 공군조종사들이 이날 도착했다. 포클랜드에 공수작전을 펴기위한 것이라고 했다. 포클랜드도로의 병력공수는 이날 새벽0시부터 시작되었다. 매일 이도시상공에는 3개편대의 미라지전투기가 포커에토28機 F27항공기를 엄호하면서 포클랜드로 떠났다.

◇리오 그란데=수송기들이 포클랜드에 보급품과 병력수송을위해 약3주전부터 부지런히 왔다갔다했다. 1만4천명의 이곳주민들은 식당 코피숍 어디를가든 포클랜드사태를 화제에 떠올렸다. 모든주민들은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궁금해 하고있다. 상점주인들은 그들이 갖고있는 초단파라디오를 들고서 포클랜드를 놓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쌍방에서 흘러나오는 협상뉴스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이것은 버릇처럼 되었다. 리오 그란데주민들은 침착한 것 같았다. 리오 그란데는 부상자들의 첫후송지역이다. 이지역에대한 공습가능성에 대비해서 주민들은 민방위훈련등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78년 칠레와의 국경분쟁때에도 이와같은 훈련이 있었다. 현재 제일크게 떠도는 소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와의 직항항공노선이 금지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현재공항은 일반인들도 여전히 사용할수 있다. 민방위대는 주민들에게 공항주위에서 차량운행을 삼가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또 경찰은 주민등록증제시등 가두검문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때는 리오 그란데에서 떠난 에어·아르헨티나소속 보잉707機가 영국전투기에의해 납치되었다는 설도 있었으나 이것은 풍문이었다. 정세가 불안하자 신문이 날개돋친듯 팔린다. 신문·잡지의 매상이 요사이 80%나 늘었다고 한다.

◇바이아 브란카=제1의 해군기지인 벨그라노 기지와 코만단테·에스페라곤군기지가 있는 군사도시이며 아르헨티나 제1의 곡물수출항구이기도 하다. 또 정유공장도 있는 산업도시다. 말비나스섬과는 1천5백㎞나 떨어져있어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시민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나타나고있다. 시민들은 정부지지의 궐기대회를 가졌다. 민간아마추어통신사들은 정부를 돕겠다고 나섰다. 며칠전에는 헌혈운행이 새로 생겼다. 국가 방위성금운동도 시작되었다. 어업노조에서는 포클랜드 주둔군들에게 보내달라고 1천㎏의 냉동가공어류를 시당국에 보내왔다. 등화관제훈련은 이제까지 한번밖에 없었다. 지난20일 단30분동안실시했었다. 바이아 브란카에서 약 27㎞떨어진 주민 5만여명의 푼타 알타는 바이아 브란카보다 전쟁의 긴장상태가 뚜렷하게나타나는듯 했다. 멀리 해군신병훈련소에서 들려오는기관총훈련사격소리가 신경을 자극했다. 어느증권브로커인은 약국에서 진정제를사면서『매일한알씩 복용해왔지만 이제는어수선한 사태때문에 복용량을 늘려야될 것같다』고 말했다.

高血壓방지 7戒

담배끊고 운동으로 체중 줄여야
짠것 해롭지만 약간의 술은좋아
美선 슈퍼마킷서도 혈압계 비치



◇50센트를 내고 약국에서 혈압을 재고있다。

프랑스인은 肝병이 걸릴까봐 공포에 질려있고 영국인은 腸에, 일본인은 세균감염에 그리고 미국인은 혈압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그러나 실제 건강관심영역과는 무관하게 혈압문제는 문명국의 공통병으로확대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70년대이후 고혈압이인류건강을 해치는 3대적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이의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혈압조정에 관한 열의는 대단하다. 세계 보건기구가 관심을 보이기이전에 사실상 미국의 혈압조정관심은 보편화됐다.

치약, 치솔등을 함께과는 약국에만가도 혈압계가 비치돼있어 50센트만 내면 즉석에서 혈압을 잴수있고 또 슈퍼마킷에서도 혈압계는 간단히 살수있어 국민의 혈압조정노력을 고무하고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고혈압경고는 절정을 이뤘다. 심장마비, 뇌일혈사망자가 늘어나자 의학계는거의 비상을걸어 혈압강하약을 개발해내는 동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통해 혈압을 내리라고 강력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로 1970년대중 미국인의 고혈압으로인한 사망률은 25%나 줄게됐다.

고혈압은 심장마비, 뇌일혈과 直關돼있는것 외에 視力약화, 신장병등의 고질병을 불러 일으키기도한다. 정상혈압은 평균 상한 130, 下限80.

수시로 혈압을 체크하여 정상선을 유지해가는것이 엄청난 고질병을 미리 방지하는 첩경이다.

고혈압연구기관으로 세계적명성을 얻고있는 美아이오와주립대학 심장병연구소의 마이클·브로디와엘런·존스투박사가 최근 내놓은 고혈압방지 7가지예방책을 보면 다음과같다.

①짠것을 피할것。미국인들의 소금치는 버릇은거의 고질이 돼있을정도다.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을맛보기도 전에 우선 소금통을 집어 짤랑짤랑 흔들어 소금을 쳐대는것이 누구나의 버릇이다. 이런 습관적인『소금통흔들기』때문에 미국인들은 인체에 필요한 소금기의 6배를 먹는다는 것이다.

②체중을 줄일것。체중이 늘면 심장의 압박을 加重시켜 자연히 혈압이 올라간다. 운동, 절식등을 통한 체중조절을 해야한다.

③담배를 끊을것。담배속에 들어있는 타르와 니코틴은 혈관응혈을 자주 일으킨다. 혈관속에 피가 엉키면 결국 혈압이 올라간다. 뿐만아니라 흡연은 동맥수축현상을 일으키며 따라서 고혈압을 증진시킨다.

④정기적인 운동을할것。운동이 혈압을 내린다는것은 확실하다. 조깅, 산보, 자전거타기, 롤러·스케이트타기, 力道등정기운동을 하면 몸매가 젊은시절로돌아오면서혈압이떨어진다.

⑤스트레스를 풀라。긴장이 쌓이면 혈압이 오른다. 운동, 영화감상, 친구교제, 사회활동등으로 스트레스를빨리풀어야한다.

⑥약간의 술을 마시는것은 좋다. 하루에 조그마한 병맥주 2병까지는 혈압조정에 오히려 이롭다. 피순환을 촉진시켜 주며 때로는 쌓인 긴장을 풀어준다. 그러나 병맥주 2병이상을 마실때는오히려위험하다.

⑦피임약은 혈압을 조작한다. 여성들이 피임약을 먹을때 가끔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있다. 피임약 복용때는 꼭 혈압을 재본후 복용하여 혈압이 오르면 즉시 중단하는것이 좋다. 【디스커버誌에서】

美, 神經가스 生産
蘇서 化學武器 備備

【워싱턴14日AP UPI=聯】미상원은 14일 행정부가 제출한 1983 회계연도국방예산중 55억달러사감, 가결하면서▲소련의 화학무기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신경가스생산재개▲핵추진항공모함 2척건조등을 비롯한 레이건대통령의 일부 방위계획을 승인했다.

상원은 그러나 MX미사일 잠정배치계획과 C5대형수송기 건조계획등 행정부가제시한 일부 주요 방위계획부문에 대한 예산을 삭제했다.

상원은 이날 장장20시간의 마라톤심의끝에 국방예산을 행정부안보다 55억달러가적은 1천7백79억달러로 축소조정, 이를 84대8로 가결한후 下院에 회부했다.

포事態 平和해결 重大고비

【유엔본부·런던15日UPI·聯】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14일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36시간이내에 평화중재안에대한 최종회답을 통고해올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포클랜드 사태는 금명간이 화전의 고비가될것으로 보인다.

포클랜드 사태해결을 위해 1주일째 외교노력을 벌이고있는 페레스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양분쟁당사국의 회답이『결정적인것』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협상이 결렬될 위험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 합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함께있다』고 강조했다.

페레스사무총장은 앤더니·파슨즈 유엔주재 영국대사의 갑작스런 귀국결정은 영국정부가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데 관심을갖고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하는것으로서『매우 희망적인조짐』이라고 지적했다.

페레스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포클랜드 분쟁해결을위한 그의 노력을 설명하는가운데『우리는 그동안 좋은 진전을 거듭해왔다』고 말하고 파슨즈대사가 뉴욕에 귀환할때는『매우 건설적인것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본국정부의 구체적인 훈령을 휴대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修交1백周 선포 한국에 宣言書보내

【워싱턴14日=聯】미국정부는 16일부터 22일까지를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주간으로 선포한 레이건대통령의 선언서를 14일 한국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미국정부의 선언서는 이날 워싱턴 매디슨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석상에서 존·홀드리지 국무성 동아시아·太平洋담당 차관보에 의해 柳炳賢주미대사에 전달됐다.

이날 리셉션은 미국을 방문중인 徐錫俊상공장관을 위해 柳대사가 마련한 것이다.

한국측 관리들은 한국정부는 全斗煥 대통령의 한미수교1백주년기념선언문을 리처드·워커주한미대사를 통해 美정부에 전달할것이라고 말했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도나스 샵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새로 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드라이크리닝
주매상 $4,000(Cash & Carry) 아스킹 $79,000 주매상 $2,300 (Cash & Carry)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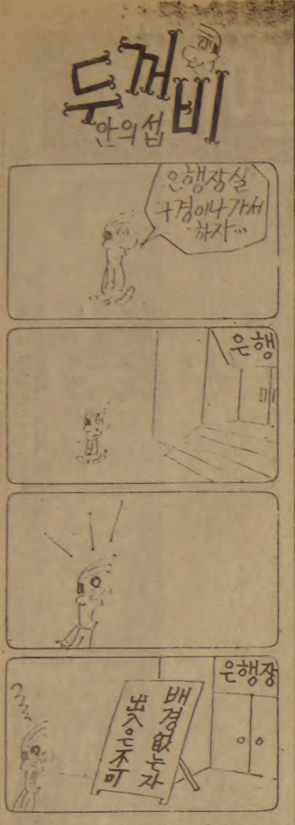
658½ BLOOR ST. W.
☎ : 537－0432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챗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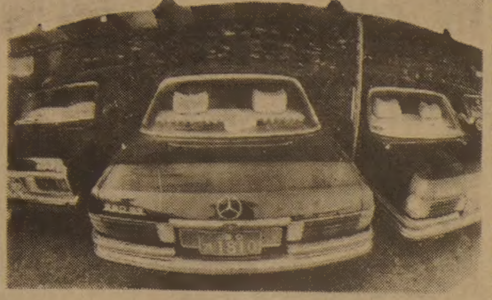
張여인 20억짜리 約束어음
私債업자 電話機서 나왔다

市銀망라…총2천만株 메모지도
은닉財産여부 搜査활기

張玲子씨가 친필로 이서한 20억원짜리 약속어음이 전화기속에 숨겨진것이 엉뚱한 경로로발견됐다。 전화기속에서는 이밖에 한국은행등 시중은행과 2천만주가넘는 주식의내역을적은 메모용지도 함께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대검중앙수사부는 이를 압수,李·張부부가 은닉한 재산의 일부로 보고 수사에 활기를 띠고있다。 약속

어음과 주식메모가 발견된것은 지난 13일하오。 서울江東區 蠶室에서 전기제품수리상을하고 있는 鄭모씨(50)가 이웃 文모씨(49)집에서 맡긴 전화기를 수리하다 발견한것。 鄭씨에 의하면 이날전화기를 분해하자 사각봉투가 나왔는데 이를뜯어보니 大和산업발행 20억원짜리 약속어음이었다는것。

蠶室 文모씨집것 修理商서 발견 申告
張여인裏書…大邱銀 4월22일支給일자


◇張여인의 車　張여인의 저택차고에 줄비하게 들어서있는 벤츠등 고급승용차들。

엄청난액수에 놀란 鄭씨는 뒷면을 살펴보니 張여인이이서했더라는것。 약속어음은大邱은행이 지급은행으로,지급일은 4월22일로돼 있었다。 사각봉투안에는 메모지도 들어있었는데 메모지 내용은 「한일은행―2백만주」「한국은행―3백50만주」식으로 산업은행과 농협 기타 시중은행이 거의망라돼있고 주식량은 1백만주에서 최고3백50만주까지 모두 2천만주가 넘는것이었다。 주식의 회사명칭은 없었지만 1주당1천원씩의 액면가로만 계산해도 줄잡아 2백억원어치가 넘는것이다。

鄭씨는 이를 발견즉시 경찰에신고, 대검중앙수사부수사진이 이를 압수했다。 이 전화기는 무선수화기가 달린 외제고급전화기로 지난 12일 文씨가 수리해달라고 맡겼던것이다。 검찰은 文씨를 소환 수사중인데 文씨는 鍾路의 S여관등 시내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으며 사채시장에도 깊이 개입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文씨가 이 사건이 터지자 사채업자들도 수사한다는 소문에 가택수색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가족들도 모르게 전화기속에 약속어음과 메모를 숨겨두었다가 이

日新본사·工場 종업원들 "회사를 살리자" 對策회의

日新제강 본사직원 2백여명은 15일상오11시 서울鍾路區壽松洞본사1층 강당에서 모임을 갖고사실상 영업중단상태에 있는회사를 살리기위한방안등을 토의했다。

또 日新제강 梧柳洞공장과 仁川공장종업원 1천7백여명도 이날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해 우수한 설비를 놀리지않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光州에 私製총 銀行갱
光州銀 예금취급소 3백만원털 兄弟검거
도망가다 쏜 총에 행인중상

【光州】 15일낮12시15분께 전남光州市 北區林洞186 光州은행林洞예금취급소에 사제총을 든 朴종채씨(23·光州市北區斗岩洞9통3반)와 동생 朴모군(18·〃)이 침입, 공포1발을 쏘고 현금3백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다 은행원과 경찰의 추격을 받고 검거됐다。

형제강도는 이날 동생이 정문10여m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형이 은행후문으로 들어와 손님대기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사제총으로 공포1발을 천정에 쏘며 『꼼짝하지 말라。움직이면 죽인다』고 외치며 계산대를 뛰어넘어 창구위에 놓였던 3백만원을 가방속에 넣어 도망쳤다。

이들 형제가 도망치자 비상출동한 경찰관1명과 은행원2명이 6백m나 쫓아가 新安洞네거리에서 붙잡았다。 형제는 도망가면서 공포2발을 또 발사했는데 이중 1발이 지나던 鄭영수 육군상병의 대퇴부를 관통, 중상을 입었다。

무직인 범인들은 용돈을 마련하기위해 20일전부터 은행을 털기로 모의하고 자기집에서 사각 목판위에 쇠파이프와 용수철 격발장치를 붙여 사제총 2정을 만들어 카빈실탄 19발을 장전, 이날범행에 사용했다。【光】

教權회복·學園수호 最善
全南大교수회의 吏道정립·企業윤리등 당부

【光州=聯】 全南대학교(총장 吳恒基)는 14일 하오5시30분 교수회의를 열고『교수들은 강의와 연구 학생지도에 정성을 다하고 교권을 회복,학원수호의 책임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全南大 11개단과대 5백20여명의 교수일동은 이날『우리의 다짐과 당부말씀』을통해『우리나라의 대학은 이제 30여년의 연륜이 쌓여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할수 있게 됐으나 지난날의 대학은 허다한 우여곡절속에 질서가 흔들리는 일이많았다』고 지적하고『그러나 올해들어서는 학생들의 학문하고자 하는 열의와 분위기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고조돼 대학이 안정돼있음은 매우 다행한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교수들은『대학도 어디까지나 사회체계의 일부이므로 일반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은 바로 대학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이런점에서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모든 요소를 국민의협조아래 바로 잡아 학생들이 한사람의 낙오도 없이 유위(有爲)한 국가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에따라 ▲교수들은 가일층 강의와 연구·학생지도에 정성을다하고 교권을 회복하여 학원수호의 책임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정치인·경제인·공직자는 과거를 거울삼아 국민과 학생이 신뢰하고 긍정하는 정치풍토의 쇄신 기업윤리의 정립 이도(吏道)의 실천에 책임을 다하고 ▲종교인은 민족의 영적구원과 학원의 안정을 위해 기구하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 한결같이 학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지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서울-런던直航취항 韓英항공協 假서명

한국과 영국은 서울-런던간의 直航路線의 就航을 가능토록하는 韓英 항공협정에 假서명했다고 15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張萬淳외무부조약심의관과 스티븐스 영국 상무성차관보간에 14일 假서명된 韓英항공협정은 서울-런던간의 중간지점기착및 일시체류,以遠權문제등은 양국 항공당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토록했다。

또 이 가서명에따라 그동안 양해각서 형식으로 운항하던 서울-臺灣-홍콩간의 지역노선이 정식으로 개설되게됐다。

宜寧사건 교훈삼자
盧내무 江原道순시

盧泰愚내무장관은 15일 강원도를 순시, 宜寧사건을 교훈삼아 상의 취약점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취임후 첫지방순시에 나선 盧장관은 이날 모든 내무공무원은 위를 보지말고 밑을 보는 자세로 일하고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행정분위기를 만들것을 당부했다。

糧穀교환제 큰人氣
全北 11만6천가마

【全州】 전북도가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정부양곡교환제가 농민들로부터 큰인기를 얻고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26일부터 미질이 좋은 정부양곡을 무이자에 현행가격대로 희망농가에 대여하고있는데 이날현재 3만2천6백35가구에서 11만6천6백25가마를 지급받았으며 1만1천5백가구에서 5만가마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도는 희망농가가 더늘어날것에대비, 당초 계획량 16만가마보다 9만가마 더 늘려 25만가마를 공급하기로했다。

이처럼 농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것은 60㎏들이 가마당 현행 가격인2만9천4백원에 무이자로 지급돼 사실상 정부미방출가격보다 5천7백원, 시중 일반미값에 비해 무려 2만8백50원이 각각 싸기 때문이다。【全】

어제 스승의날 紀念式
各級校 갖가지行事…師道憲章선포

15일은 선생님의 은혜에대해 감사하고 그높은 뜻을 기리는 스승의 날。

국무회의가 매년 5월15일을 스승의날로 정한 이후 처음 맞는 이날 전국의 각급학교와 동창회·사회단체등에서는▲은사의밤 개최▲옛스승 찾아뵙기 ▲불우은사돕기 ▲기념리번달기 ▲글짓기·표어모집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문교부는 이날상오10시 중앙 국립극장에서 劉彰順국무총리를 비롯, 사회 각계인사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자리에선 대한교련이교권확립의해를 맞아 마련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이 선포됐다。 문교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를 스승공경주간으로설정, 각 교육관계기관에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및 사기진작을위한 각종행사를 거행토록 권장했다。

해강兒童文學 시상
中高生 장학금전달

【釜山】 82년도 해강아동문학상 시상및 해강장학금 전달식이 15일 부산東區草梁洞 소재 태평화학 강당에서 열렸다。

청소년의 달인 5월을 기념하고 이들에게 꿈과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해강 金昇坤씨가 제정한 아동문학상의 올해 수상자는 작가상에 金相南씨(忠武국민학교교사), 소년상에 임은정양(양동국교6년) 이해령양(괴정국교4년)이 선정됐다。

이날 작가상에는 상금 1백만원과 순금메달, 소년상에는 장학금 10만원씩이 전해졌다。【釜】

違反버스업체 엄단
學生·경로우대割引

【光州】 전남도는 15일 시외버스의 학생과 경로우대요금을 할인하지않는일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하라고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어지시에서 일부시외버스 안내양이 부담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고 지적, 기본요금거리인 학생요금을 70원씩 징수하지않고 1백원을 징수하거나 경로우대요금 50%할인을 거부하는 사례등을 철저히 단속,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처분하고 위반차량을 공개하도록했다。【光】

老스승의 50년파노라마

◇이웃꼬마의 친구　노후의 외로움속에서도 이웃꼬마들과 어울리는게 큰즐거움。 가난과 불편한몸으로 고생하지만 「점점 퇴색하는 교권」 만이 유일한 걱정거리다。

8旬의 수학선생님 車弼濟할아버지
단칸셋방에 서울서 학생들이 찾아와 가슴에 카네이션…옛생각에 老眼적셔
61년 경기商高서 停年때까지 줄곧 平教師

「수학선생님」車弼濟할아버지(83·일반수학저자·경기城南市銀杏洞 619의 2)는 스승의 날인 15일 실로 오랜만에 노후의 외로움에서 깨어났다。

수학선생님의 단칸셋방에 뜻밖에 찾아온 손님은 한번도 만난적이없는 경기상고학생대표4명。 『선생님 감사합니다』가슴에 달아주는 카네이션을 보며 노안에물기가서렸다。

경기상고는 車씨가 가장 오래 교단을 지켰던곳。 직접 가르친 제자는 아니지만 꽃을받은 車씨는 순간뿌듯한보람에말을잊지못했다。

車씨가 교단을 지킨것은 50년。 먼옛날의 제자얼굴부터 지나온 교직생활이한순간 되살아났다。

1919년 平壤光成고보를 졸업한 車씨는 고보시절 만세운동때문에 러시아땅으로 도피, 그로데고보에서 한국교포四達학교 학생 60명을 가르치게된것이 교단의 첫출발이다。

그뒤 1925년 延禧전문수물과를 졸업 해방전까지 황해도鳳山郡明農학원과 모교인 光成고보에서근무했던 車씨는 韓沁錫전서울大총장,金炳雲慶熙호텔전문대학장등 이제는 함께 백발이된 제자를 비롯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다。

6·25때는 馬山에서 延專동창인 崔奎南씨(84)의 도움으로 馬山여고에서 잠시 가르쳤고 수복후에는 鐘鶴여고를 거쳐 경기상고에서 지난61년 정년때까지 평교사로만 재직해 왔다。

비록 평교사였지만 재직시에는 「수학선생님」으로 모르는 이가 없었다。 검정교과서 일반수학은 그의 저서。

車씨는 가르치는 이외에는 무능했던 사람。 집한칸 마련못하고 학교관사에서만 지냈다。 그러다가 만60세가되던해 정년으로 교단을 떠나야 했다。 퇴직금은 한달분 봉급15만원뿐。 다행히 수중에는 교과서인세 3백만원이 남아있어 이를 새로운 생활의 밑천으로삼았다。

이돈으로 馬場洞에 25평짜리 집한칸을 샀으나 생계가 되지않아 집을 팔아 議政府에서 토끼를키웠다。

1년동안 3백마리로 번식시켰으나 팔때는 값이떨어진데다 살려는 사람마저 없어 議政府농고 학생들에게 한쌍씩나눠준후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그때 慶熙고교 교장이던 현 慶熙호텔전문대 金炳雲학장의 제의로 시간강사직을 맡았다。 그러나 70세가 되면서부터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살길이 막연해졌다。

서울에서 城南市로 전세방을 1백만원짜리로 옮겨 나머지돈 50만원으로 김·멸치행상에 나섰다。 멸치행상8년은 할아버지 다리에 병만나게했다。 80년부터는 다리를마음대로 움직일수없어 금년들어 전세도싸고 학생들이 많은銀杏국교 담밑으로 이사했다。

굳이학교옆을 택한것은 학생들의조잘거림소리와 뒹구는 네꼬마들과 어울릴수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58년 부인이 타계한뒤 지금은李月泰씨(48)의 뒷바라지를 받고있다。 신학교를나와 개척교회만을 다니며 목사로 선교활동을 하고있는 외아들 用植씨(59)는 아버지곁을 떠난지 오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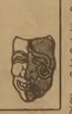
백발에 곱상하게 늙은할아버지 선생님은 아직도다리만 빼놓고는 그래도 정정하다。 눈가에 외로움은 엿보여도 궁상기는 없다。 아직도 개구장이 학생들을 꾸짖을수있는 힘은 남아있는것 같았다。

『점점 교권이 퇴색하는것같아 서글프기만 하군。 선생님은 엄격해야하지만 항상 꾸짖기만 하는것은 더욱 나쁘지。 친구나 동생처럼 학생들을 대해야교사를 더욱 믿고따르게 되지…』

『우리들의 수학선생님』은 가난해도 외롭지않은듯했다。【鄭在龍기자】

"그놈이 글세…"
鐵窓서 흐느끼는 露店商 金永祚씨
脫線아들·친구들에 사랑의매질…拘束

자식을 키우다보면 힘들고 속상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려서는 온갖 재롱으로 부모의 넋을 빼던 녀석들이 중학교라도 들어갈 때쯤 되면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제멋대로 빗나가는수가많다。 벌어먹이기도 힘든 세상에 자식들이 행패나 부리고 돌아다니면 부모들은 정말로 살맛이없다。



서울淸溪川에서 헌책노점상을 하는 金永祚씨(사진·46·서울東大門區踏十里4洞)는 13살난 아들이 하도 말을안듣고 탈선을 일삼아 참다못해 아들과 그 패거리 친구들에게「사랑의매질」을 한것이 화근이되어 淸涼里경찰서에 폭력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쇠막대기로 아이들을 몇차례때린것이 1~2주의 진단이 나왔고 또 아무리 「사랑의매」지만 남의집 아이까지 때렸으니 「매」가 좀 과했다면 과했다。

金씨는 원래 택시운전사였다。 핸들을 잡아 부인과 남매등 4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오는 동안, 재수가 없었는지 사고가 잦아 전과를 8개나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학교가 최종학력인 金씨는 아들을 공부시켜야한다는 일념에는 「국민학교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아들이 중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웬일인지 빗나가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패거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가출을 밥먹듯이했다。 「지각이 들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울분을 누르면서 金씨는 가출한 아들을 찾아 마을 교회다, 종각속, 폐차장, 빈룸떠방등을 뒤져 데리고 온 것만도 20번이 넘는다。

金씨는 그때마다 아들과 친구들에게 용돈까지 나눠주면서『친구는 좋은방향으로 사귀어야한다』고 누누이 타일렀다。 그러나 지난 9일 아들은 또다시 집을나갔고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자퇴가 되어있음을 알았다。 3일만에 아들이 다시 집에 나타나자 金씨는 아들과 친구들을 불러모아놓고 눈물까지 흘려가며 훈계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들과 그 친구들은 들은척도 하지않고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는 것이었다。 金씨는 순간적으로 옆에있던 쇠막대기를 들었다。

『자식잘못 키운 것은 부모의 탓일테지요。 잘되면 제탓이라고 하겠지만…』「사랑의 매질」로 9번째 전과를 기록한 金씨는 철창속에서 울고있었다【鄭淙鎬기자】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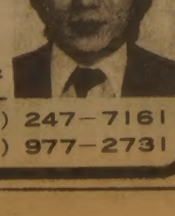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한국力道 최고의날…亞洲新 4개

韓日親善대회 安智榮3·安孝爵 1개 기염

◇安智榮

◇安孝爵

역도에서 아시아신기록 4개가 쏟아졌다.

제17회 韓·日친선역도대회가 15일 서울체육고에서 열려 한국역도의 간판선수인 安智榮(현대건설)은 1백㎏급 인상,용상,총계서 3개의 아시아신기록을 세웠으며 1백10㎏의 安孝爵(鄕軍)도 인상에서 아시아최고기록을 세워 기염을토했다.

이날安智榮은 인상 2차시기서 1백55㎏을들어 한국신기록을 세운뒤 번외서1백57·5㎏을 들어올려 아시아최고기록 (종전1백55㎏)을세웠다.

安은 용상서 1백97·5㎏으로 한국신을 세우고 이어 번외시기서 2백㎏의 아시아신기록을 세웠다. 安智榮의 총계기록 3백52·5㎏도 아시아 신기록이었다.

이날 安孝爵은 1백10㎏급 인상번외서 1백60㎏을 기록, 中共 선수가 갖고있던아시아 최고기록 1백55㎏을 5㎏경신 했다.

이날 韓·日 친선경기서한국은 9체급 가운데서 플라이급을 제외한 8체급서 우세를 보였다.

내한한 日本팀은 2진級으로 구성됐다.

李美京 1位
학생乘馬 마장마술

故関丙璋·成書泰씨를 기념하는 82년도 학생승마대회가 15일 경기도 金谷 백마구락부마장에서 개막됐다.

올해 처음 채택된 존·헤이그마장 마술에서 延世大 李美京은 103·75점으로 남자선수들을 제치고 대학부1위를 차지했다. 고등부서는 京畿高 申昊慶이 97점으로 1위를 마크했다.

15일의 마장마술경기 우승자에게는 지난46년 대한학생마술연맹을 창설한 故成書泰杯가, 16일의 장애물경기 우승자에게는 52년 헬싱키올림픽에 출전했던 故関丙璋杯가 수여된다.

◇첫날전적 ▲존·헤이그마장마술 고등부=①申昊慶(경기) 97점 ②朴碩俊 (보성) 93·25 ③張演皓 (경기) 86·25 ▲동대학부=①李美京 (연세) 103·75점 ②徐廷均(서울) 95·5 ③馬載雄 (중앙) 95·25

한국、日주니어 擊破 NHK排球

【東京支社】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은 15일 하오 오오사까에서 벌어진 NHK컵 국제배구대회 2차전서 日本여자주니어 대표팀을 3－0으로 눌러 訪日전적 1승1패를마크했다. 한국여자팀은 제2·3세트는 손쉽게 따냈으나첫세트서는 몸이 풀리지 않아 듀스까지 몰렸다.

한국대표팀은 16일 日本대표팀과 최종전을 갖는다.

◇제2차전 한국 3 (15－5, 15－6, 16－14) 0 日本주니어

具玉姬 76打로 6位
世界 여자골프大會

【東京14日聯合】日本도오꼬(東京) 요미우리(讀賣) 컨트리클럽에서 14일 개막된 세계여자골프대회에서 한국의 具玉姬는 첫날 76타를 기록, 臺灣선수와 함께 공동6위를 마크했다.

8만5천달러의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또 한국의 安鍾賢과 姜春子는 각각 83타와 84타를 기록, 11위와 12위를 달리고 있다.

日本의 요시모찌·시나꼬는 이날 70타로 선두에 나섰다.

金 복싱聯盟회장 집행위원에 被選
세계아마복싱聯

【뮌헨＝聯】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金承渊회장이 세계아마복싱연맹 (AIBA) 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AIBA는 15일 이곳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金澤壽집행위원 (IOC위원)의 사표를수리하고 후임으로 金承渊씨를 뽑았다.

金회장의 잔여임기는 오는 11월까지이나 다음번 세계연맹총회에서 임기 4년의집행위원으로 재선임될것이 확실시되고있다.

金東吉「金」에 도전

世界아마복싱 스웨덴選手꺾고 決勝올라

【뮌헨＝聯】 金東吉 (19·한체대1년)은 15일 새벽2시 (이하한국시간) 이곳 올림피아홀서벌어진 제3회 세계아마복싱선수권대회 라이트·웰터급준결승전서 스웨덴의 흑인선수인 오리암보를 판정으로꺾고 결승전에 진출, 銀메달을 확보했다. 金은 16일새벽 쿠바의 강호 가르치아·카를로스(18)와 金메달을겨룬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12체급에 걸쳐 24명의 결승전진출선수를 가려내고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결승진출선수는 쿠바가 6명으로 가장 많고 美國과 蘇聯이 각각 5명, 남북한·불가리아·몽고·폴란드·핀란드·西獨·이탈리아가 각각1명씩이다.

◇기쁨속의 미스USA

미스·아칸소인 테리·리·어틀리양 (20) 이 13일밤 빌록시에서 열린 미스·USA선발대회에서 미스·USA로 뽑히는 순간 기쁨을 감추지못해 비명을 지르며울고있다. 【빌록시14일 AP電送＝聯合】

海外토픽

코끼리가 行人죽여
★서커스도중 도망쳐나와

갑자기 광폭해진 코끼리 2마리가 서커스도중 길거리로 뛰쳐나가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중년부인을 밟아죽였다.

이탈리아남부의 살레르노시에서 공연중이던 서커스단소속인 이 코끼리들은 느닷없이 미쳐 날뛰며 밖으로 나가 조련사가 제지할 틈도 없이 부인을 눌러 숨지게했다. 【살레르노＝UPI】

胎兒때藥피해 주장
★癌걸린女人 50만弗보상

뉴욕州의 한 상고법원은 자신이 태어나기전 어머니가데스라는 약을 복용한 결과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한 여인에게 엘리·릴리 제약회사가 5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지시.

법원은 17세때 경부암과자궁암에 걸렸던 조이스·비칠러양에게 배상을 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 【앨버니(美뉴욕州)＝UPI】

記者의 눈

選良의 名分과 속마음

「속마음의 本心」과「겉마음의 名分」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本心과名分의 이러한 表裏 현상은 정치인의 행동에서 적잖게 보게 된다。

언제나 그럴싸한 표면의 명분뒤에는 어두운 속마음이 가려져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국민의 耳目이집중되어있던 14일「張여인 국회(財務委)」에서 지극히도 헤아리기어려운 駭怪한 일이 벌어졌다。

李哲熙·張玲子부부 다음으로 어느 구구보다 사건의 흐름을 잘 알만한 林在秀 전朝興·孔德鍾 전商銀 두 행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던 국회가 진의 한마디 하지 않은채 이들을 되돌려 보낸 것이다。

두 前行長의 일방적인 野黨이라는 民韓黨 의원들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꼬박 이틀밤을 지새우며 어렵사이나마 張여인 사건을 感知할수는 있을듯한 막바지 순간에 국회는 스스로 알맹이있는 사건의 追跡을 포기한 꼴이되어버렸다。

이날 두 前행장은「金融의 구조를 안다면 전화 한통화에 1백억원이 貸出될수 있다고 하는것은 無知의 소치다」「어음장의 過多交付는 支店長의 裁量인데 은행장이 지시할 필요도 없는것이다」「청탁이나 壓力은 전혀없었다」고 털어놨다。이같은 一方的진술에 따르면 정부당국의 중간발표는 상당부분이 虛構이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된다。

이같은 意外(?)의 진술에 벌집을 쑤셔 놓은듯 與·野의원들이 보충질의를 벌이고 있을즈음 李載根의원(民韓)이 느닷없이『참고인은 僞證을 해도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으니 이들을 상대로 한 질의 응답을『끝내자』고 불쑥 제의를 했다。뒤이어金台植의원 (民韓) 이『두 行長 대신 장관의 답변을 듣자』고 맞장구를 치자 朴泰俊위원장은 停會를 선포, 두 前行長을 放流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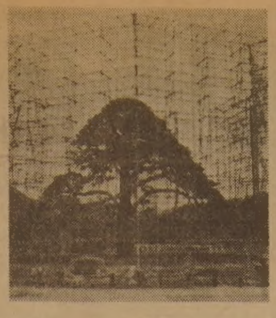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짚어보고싶은 것은 어찌 은행장들의 진술에 대한 眞僞를 가리지 못했느냐는 차원의 추궁보다 과연 두 前행장을 放流시켜야 했던「두 의원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憤怒와 허탈에찬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는 의지는 어디로갔으며 일방적 해명이 몰고올 더깊은 궁금증과 疑惑의책임은 누가 진단말인가。

의원들은 이틀밤을 지새우며누구를위한 정부이며 누구를위한 장관이냐고 분을 吐했다。이제는 국민들이 누구를위한 국회며누구를위한選良이냐고물을차례인것같다。 【李成俊기자】

正二品松 異色 구호작전

俗離山문지기 알루미늄保護網
혹파리방지策…18m 매머드
3천만원投入 3년뒤 완치



◇俗離山입구에있는 正二品松 (천연기념물제103호)에 솔잎혹파리를 막기위한 높이18m 둘레96m의 대형 보호망씌우기작업이 한창이다.

【淸州】국립공원 俗離山 입구를 지키고있는「지체높은 나무」인 正二品松 (천연기념물 제103호)에 거대한 보호망 씌우기작업이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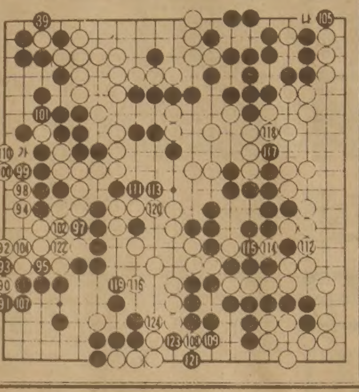
지난 4월6일부터 시작된 이「나무집짓기」공사는 그동안 솔잎혹파리의 피해를입은 正二品 老松에 영양제 수간주사등 갖가지 구호작전을 펴고 전문가들로부터『더이상의 솔잎혹파리 피해만없으면 회생이 확실하다』는 결론에따라 솔잎혹파리를 막는데는 최선의방법으로 채택된 사실상의 마지막 보호작전인 것。

문화재관리국이 2천7백30만원을들여 시공중인 이 보호망설치공사는 오는 10일께 완공되는데 正二品松을 중심으로 2백3평위에 높이18m, 둘레 96m의 보호망은 8각지주를 잇기위해 6m짜리 파이프1천8백개와 2m짜리 8백개등 모두 2천6백개의 파이프가 소요돼 보호망이라기보다는 대형 알루미늄퀸세트가 되고 있다。【聯】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12譜 189~224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河燦錫 〈3勝2敗〉
黑(6段) 徐能旭 〈2勝3敗〉



白 착실한 마무리

결과부터 밝히면 이바둑은 白의 8집반 승리로 종국되었다。앞서 우상귀를 한껏 짓밟고서 굳혀놓은 승리를、河7단은 착실하게 끝까지 지켰던 것이다。

따라서 본보는 黑의 필사적인 추격과 이에대한 白의 攻防이 볼만한 것이다。

좌상귀서 黑89로 잡아넌 이후 河7단은 演变을 섞어가며 한점한점 최선을 다했다。이기고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게 큰차는 아니다。매섭게 가겨오는 徐6단의 예봉을 피하려면 추호의 방심도 안되는것이다。

좌변을 白90으로 젖힌다음 93자리를 잇지않고 92로 패모양을 만든것이 94에젖히는 끝내기를 겸한 최선의 수였다。徐6단은 이에반발하듯이 黑93에서 95로 젖혀 변화를 꾀한다。

白은 일단96으로 패를 따내더니 黑97때 직접 102자리를 잇지않고 98로 기어들어갔다。허 지점에서 민첩한 끝내기。黑이102로 잡으면 白「가」로부터 최어 白집을 깨며 제자리에서 살아버릴 작전이다。

따라서 黑99가 부득이했으나 白98, 100을 당한만큼 黑은손해、白은멋지게 집차를 벌려놓았다。

徐6단은 아마 여기서 던지고 싶었을지 모른다。그러나 다시 용기를 떨치며 우상귀를 黑105。河7단은『허、좋쳤구나』하며 白「나」를 못둔것이 아까운 표정이었다。하지만 이제남은 잔끝내기에서는 아무리해도 형세가 뒤집힐 곳은 없다。

하변을 黑123、白124까지 둔뒤에 徐6단은 좌상귀에서 패를 시작하여 하나의변화를 일으켰지만、총보에서 보게되듯이 오히려 손해만 커지고 말았다。96、103、106…좌변의패。 【一凡】

프로野球

金城漢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태、三星에 逆轉勝

金城漢이 패배직전의 해태 타이거즈를 구했다。

전기 중간순위 (15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	OB	13	6	·684
②	삼성	13	8	·619
③	MBC	10	10	·500
③	해태	9	9	·500
⑤	롯데	8	10	·444
⑥	삼미	5	15	·250

해태의 金城漢은 15일光州 무등경기장서 벌어진 강호三星과의 경기에서 6회부터선발 金勇男을 구원역투, 연장 11회까지 6회동안 3진 4개 포볼3개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7회말에는동점2점홈런, 연장11회말 황금의 우전결승타를 날려 해태에 3－2로감격의 역전승을 안겨주었다。

金城漢은 이로써 4승1패를 올렸으며 金의 수훈으로 해태는 홈구장서 三星에 진 연3패의 빚을갚고 9승9패를 마크, 공동3위로 뛰어올랐다。OB베어즈는 大田구장서 三美슈퍼스타즈와대결, 朴哲淳의 역투와 金宇烈의2개의 2점홈런등 5타점수훈에 힘입어 9대1로 대승했다。OB는 13승6패로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OB의 4번타자 金宇烈은 홈런 8개、타점 21개로 타격 2부문의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투수 朴哲淳은 8승2패의 최다승을 기록하고있다。

◇제15일전적

◆서울

롯데	000	100	01×	
MBC	001	110	0××	

▲홈런 柳承安 (8회MBC)

◆光州

삼성	100	100	0…0		2
해태	000	000	2…1		3

〈11회연장〉 ▲홈런 金城漢 (7회2점해태)

◆大田

삼미	000	000	001	1
OB	200	103	21×	9

▲홈런 金宇烈 (1회2점·6회2점OB)

世宗大王 탄신일
英陵서 숭모제전

世宗大王 5백85회 탄신일인 15일 경기도驪州郡陵西面旺岱里의 英陵에서 李光杓문공부장관을 비롯, 각계대표가 참석한가운데 「世宗숭모제전」이 열렸다。이날제전은 종전까지 한글날에 올리던 茶禮行祭를탄신일로 앞당겨 국가의식으로 거행한 첫。

문공부는 지난77년 14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英陵경역을 깨끗이 단장했으며 英陵역 8천4백평의 녹지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15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중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流星의 賦 <384>

李炳注作 李友範畵

勇名天下에 떨치다 ②

용인에서 회군(回軍)한 입화군(立花軍)을 대천(大川)에서 협공하기로하고 홍계남은 신불을 급파하여 사근천(沙斤川)과 대천이 합류하는 곳에서 대기하도록하고 자신은 일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하류에 매복했다。

조인식의 부대는 수원성 근처에서 양동작전(陽動作戰)을하여 외지에 나간 적병을 유인하는 작전을 진행중에 있었다。

수원성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보고를받은 입화군(立花軍)은 일제히 횃불을 들고 야음속을 빠른 속도로 진군하여 대천부근에 이르렀다。척후의 보고에 의하면 근처에 아무런 동정이없다는 것이어서 오로지 수원성만을 목표로하고 달려가고 있었던 터였다。

적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계남은 조총의 발사를명했다。강중의 적들은 모두 횃불을 강에 던졌다。별빛이 있을 뿐인 칠흑의 밤이었지만 강물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격의 대상을 용이하게 포착할수 있어 조총의 사격은 백발백중까진 못되어도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적병은 황급히 대안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엔 신불의 군사가 대기하고 있었다。일제히 조총의 난사가 있었다。적병은 건너가지도 도로 돌아서지도 못해 강중에서 얼쩡거리다가, 미리 파악해 두었던 길로부터 벗어나 물깊은 곳을 헛짚어 빠져 죽는자도 많았다。

그러는 동안 계남군은 어떤 저 언덕에서 함성을 올리는 한편 야음을 틈타 적에 접근하여 창으로 칼로 마구 찔러 죽였다。

계남은『입화를 사로 잡도록 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일본말로

『모두 항복하라。그 길 밖엔 살 길이 없다』고 외쳐대기도 했다。

날이 샐 무렵엔 살아 있는 적병의 그림자도 없었다。물에 빠져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창과 칼에 찔려 죽은 적의 시체만이 있었다。입화가 인솔한 적병은 5백이라고 했는데 그 반수가 거기서 죽고 도망 친 자가 반수쯤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적의 부장 입화도 도망간 숫자 안에 끼어 있었다。

신불이 패주한 적을 쫓아 수원성으로 처들어 가자고 했다。

『아니다。우리는 광교산으로 들어가 군사들을 재워야 한다。이곳에서 그들을 쳤다고 해서 만심하면 안돼。지친 병사들을 우선 쉬게 해야지』

하고 홍계남은 교대로 파수를 보게하고 적당한 산골짜기를 골라 병사들을 자게 했다。

이 대천의 전투도 상당히 격심한 전투였고, 그 전과 또한 대단한 것인데 정사엔기록이없다。홍계남의 군을 사군(私軍)으로 치고 당시의 감사와 지방관들이 고의로 기록에서 제외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일본측의 기록엔 남아있다。

그때 포로가 되었다가 뒤에 풀려난 원도장길(猿渡長吉)이란 자가 대천의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홍계남은 실로 지장(智將)이며 용장(勇將)이다。우리가 용인으로 갈때 돌아올 때를위해 미리 수심(水深)을 재어 깊으지 않은 곳을 우리만 알수있도록 표를해 두었던 것인데 계남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매복해있다가 돌연 우리들을 공격해온 것이다。참담한 패배였다…』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2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회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룰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임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광고문의 533-2361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Store Helper 구함.
Full Time 주 40시간
남자로서 유경험자에 한함.
오후 3시-9시까지 (주6일)
전화: 368-8147 김.

캐셔 또는 매니져 구함(남·녀관계 없음)
57 Willows Lane Pickering, Mr.Kim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숙소 제공해 줄수 있음)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Full Time 캐쉬어 구함.
(웨스톤 × 휜치) 전화: 741-1465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바디·Shop에서 일하실분 구함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전화 : 751-9280

경험있는 여자 캐셔 구함.(Good Wage)
(스카알렛×이그린톤: 서부지역) 전화: 767-0762

Part Time으로 가게에서 막일 하실분 구함.
전화: 622-8516

Full Time or Part Time 캐셔구함.
동부지역 전화: 422-3121

꽃집에서 일하실 남자 Helper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5-9419

Full Time 스토아 헬퍼구함.
리치몬드·힐 지역(Yonge×Hwy 7)
전화: 884-5433

Variety & Grocery Store
매니져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368-8138 (오후6시 이후에 연락 바람)

의류수선 (복식 양재, 또는 봉제하청)
동업자 구함 - 기능자에 한해서 남녀 불문
상세문의 오후6시~9시 전화: 530-1046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20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착실한 26세부터 34세 사이의 신부감 구함
57 Willows Lane Pickering, Ont. (Mr. Kang)
꼭히 관심있으신분은 서신 연락바람.
(비 영주권자라도 관계없음)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Hunt's Bakery 급매
Jane-Finch Shopping Mall안에
3개월된 새 Store 임.
건강관계로 급매 코져함. 전망좋은 Mall임.
가격: $148,500 다운페이: $45,000
잔액은 Business Loan 가능함.
3주간 Hunt's 본사 School 에서 Training 받음.
전화: 635-0187 Mr. Kim

Recreation Farm On Trent - Severn System.
상업성 전망이 밝은 약 30 에이커를 포함한
200 에이커 정도의 레크레이션 농장 팝니다.
많은 수목이 우거졌으며 토론토까지 1시간 거리로서
낚시와 사냥을 할 수있는 좋은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흥미있으신 분은 한국일보의
Miss. 박에게 문의 바랍니다.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BUSINESS BARGAINS
드라이 크리닝 장비 싸게 팝니다.
4 Drycleaning Plants asking $29,000, $49,000, $69,000, $159,000

2 Variety Stores asking $26,900, $45,000

2 Donuts Shops askig $129,000, $169,000

Call Nick Marali
Selective Realty, Realtor
Days : 751-6850
Evenings: 439-7796

이훈모부동산

1) Coffee Shop in Office Building
주매상: $6,500, Rent: $1,200
주5일 영업, 아스킹: $24만
다운페이: $10만, 리스3년 + 5년
2) Donuts Shop
현재 주매상: $8,000 리스: 20년
Rent: $3500(옆에 달린 Office포함.)
아스킹: $325,000 다운페이: $15만 요구.
3) 점포와 Apartment
Bloor 한인상가에 있음.
아스킹: $149,000, 다운페이: $6만.

전화: 225-1204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히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토론토에서 가까운 지역의 Motels.
▲19 Unites: $ 93,000 Gross, ▲29 Unites: $101,000 Gross
▲15 Unites: $ 66,000 Gross, ▲16 Unites: $ 72,000 Gross
▲16 Unites+ $110,000 Gross, ▲30 Unites: $200,000 Gross
Call: Andrew 665-6778, 537-4156
Yanka Realty Inc.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탁
전화 : 769-9704(5시이후)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Restaurant For Sale (Tavern)
동쪽끝에 좋은 환경에 위치한 식당 급매.
Good Lease(20 Years), Good Terms, 가격 : $350,000, 좌석 : 300
영업시간 : 7:00 a.m~1:00 a.m (Mon.~Fri.)
9:00 a.m~10:00 p.m (Sat.~Sun.)
자세한 내용은 오후 5시이후에 연락바람.
전화 : 284-0304 (Alex)

좋은 위치의 빌딩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로타리오머신과 딴 여러종류의 복권등 있음
전화 : 537-6296 Tom

타사업 관계로 (Variety) 급매, Ticket은 별도수입
주매상 : $4,500, 좋은 살림집 꼭히 관심 있으신분 전화요망.
오후5시 이후, 전화: 636-4438

Full Liquor License가 있는
40석 Family Restaurant 급매
전망이 좋고 이윤이 높음.
꼭히 뜻있는 분은 1166 Morningside Ave. at Sheppard로 오셔서 Mrs. Kim을 찾으세요.

Variey Store 매매
(꼭히 관심 있으신분은 내방 바람)
영업시간 :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일요일은 쉼)
조그마한 규모로서 혼자서 경영가능
1946 제랄드×우드바인코너
(J & N Discount Store)

Variety & Hardware Store 급매
주매상: $9,000 아스킹: $100,000 + 스탁
리스 4년 + 옵션 5년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cent Shopping Mall 옆)

과일 · 꽃가게 급매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8시(주6일영업,일요일은 쉼)
주매상: $6,000 개런티 리스: 4년 + 5년
Rent: $1,043/mon. 넓이: 2,385 Sq.ft.
아스킹: $40,000 + 스탁
437 Carlaw Ave.(Riverdale Plaza) At Gerrard.

Becker Milk Store Franchise
3731 Lawrence Ave. E.
꼭히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전화: 431-3921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New Market에 있는 Smoke & Gift Shop급매
시간짧고 주6일 영업 (Lottary머신 있음)
1-895-9581 (저녁9시 이전)

Stock Sale, Giftware, Retail Value,
$10,000이상, Asking : $2,500(Cash)
전화 : 823-6390 Mr. Kim

코너에 있는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9,000(No Agents)
73 Coxwell Ave. (4시 이후 방문 바람)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식당과(Snack)아이스크림 & 그로서리를 겸한 가게 급매
499 David Dr. (New Market, Ont.)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2 Bed Room 달린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500
전화 : 694-1912

하우스 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십시요.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화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